



2022 인하대 - 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주제 다문화 사회와 인문케어

일시 2022년 4월 22일 (금) 13:00 - 16:30

진행 오프라인 및 웨비나(ZOOM) 동시진행

2022 인하대 - 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자료집

목차

발표 1 _ 김명희(인하대)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성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성찰 경험을 다룬 질적 메타분석 1

발표 2 _ LACHAKASY(강원대)

캄보디아 초등교사양성제도의 최근 개혁동향과 교육구성원의 인식 분석 23

발표 3 _ 남정연(인하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30

발표 4 _ 이소정(강원대)

꿈 분석을 통한 자기인식 변화 고찰 48

발표 5 _ 서현주(인하대)

미술치료경험을 통한 애착불안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61

발표 6 _ 김수아(강원대)

영화 '카드로 만든 집'을 통해 본 멜랑콜리와 애도 79

2022 인하대-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세션 1.

사회 | 유강하 (강원대)

발표 1 _ 김명희(인하대)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성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성찰 경험을 다룬 질적 메타분석

발표 2 _ LACHAKASY(강원대)

캄보디아 초등교사양성제도의 최근 개혁동향과 교육구성원의 인식 분석

발표 3 _ 남정연(인하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Alexandra(2001)는 청년위기(Quarter life Crisis)를 언급하면서 20대 청년들이 직업, 경제, 주거, 인간관계 등과 같은 개인적·사회적 문제점으로 인해 여러 부정정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Macia(1991)는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더욱 구체화하여 청년의 정체감 발달 이론을 제시하면서 청년은 개인적·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기로 정체감위기를 경험한다고 보았다.

현재 한국 현대사회에서의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해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로 집계되었으며(OECD, 2021), 자살동기로는 정신적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보건복지부, 2020), 한국 청년들의 부정정서를 사회현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과도한 경쟁구조로 인한 청년위기, 정체감위기 경험은 건강한 정체감을 확립을 어렵게 만들고, 추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에서 타자와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즉 대학생 시기에 정체감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역할 혼미의 단계로 개인의 심리적 불균형과 사회에서의 타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Erikson, 1959). 특히 한국의 청년층의 대학진학률은 100명 중 약 70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청년위기는 대학생의 위기라 볼 수 있으며, 대학생들이 청년위기와 정체감위기를 극복하여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Frankl(1967)는 자기성찰로서 자기 삶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라 보았으며, 이는 자기성찰은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도록 돕는다고 볼 수 있다(박소현, 김한별, 2012). 즉 대학생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좋은 전략 중 하나로 문학치료를 볼 수 있다. 문학치료는 나와 타자의 서사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정운채, 2008)에서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의 치료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인 자기성찰을 가능하게 하며(김춘경 외, 2006), 문학치료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도 자신 안에 있다고 보는 자기성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정성옥, 2006). 또한 문학은 타자의 존중과 수용성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확대시켜 자기성찰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더욱 안정적으로 형성하게 한다(김정용, 2017). 다시 말해 문학치료에서 자기성찰은 자기이해에서 더 나아가 타자이해로 확대되고, 이는 타자지향적인 삶의 실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2022년 석사학위논문 수정 및 보완한 것임

천까지도 나아갈 수 있음으로 문학치료 참여 경험은 대학생의 발달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요소로 적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학치료에 참여한 대학생의 자기성찰 경험을 질적 메타분석으로 연구하여 문학치료가 대학생 정체감 변화와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치료 참여 경험 속에서의 정체감 변화 과정을 성찰 경험 위주로 살펴본 개별 질적 연구물들은 있으나, 이를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한 사례는 없다. 질적 메타분석은 질적연구를 위한 출발점이자 질적 연구의 정리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김명희, 2021), 기존에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개별 질적연구물을 종합, 정리,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학문의 정성적 발견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Sandelowski, 1997). 즉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건강한 정체감 형성에서 문학치료 참여 속에서 자기성찰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대학생 대상 문학치료 혹은 인문 융합치료 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연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체감 형성에서의 자기성찰

청년의 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발달심리학자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psychosocial developmental stages)에서 주목받았다. Erikson(1959)은 생의 특정한 시기를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로 나누어 8단계의 발달과업을 제시하였으며, 각 발달과업에서 단계별로 과업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청년기의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identity versus role confusion)' 단계를 성년기 '친밀감 대 고립감(intimacy versus isolation)' 발달단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이라 하였으며, 여러 학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년기에 자아정체감 형성은 성인 초기의 대인 관계, 친밀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라, 2015).

대학생 시기에 정체감 형성은 개인적·사회적 정체감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정체감 구분은 사회정체이론(Social identity theory)(Tajfel, 1982; Tajfel and Turner, 1979)에서 제시한 개인적·사회적 정체감 구분을 근거하여 볼 수 있다. 개인적 정체감이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특징에 관한 정체성이고, 사회적 정체감이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이다(김혜숙 외 2011). 즉, 개인적 정체감은 나는 타자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정체감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타자와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정체감 확립은 자기성찰을 통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타자 이해와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에 정체감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Macia(1991)는 Erikson(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을 더욱 구체화하여 대학생

의 위기와 헌신을 바탕으로 네 가지 정체감 지위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도식적 요약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Marcia의 정체감 지위 유형

준거		헌신	
		예	아니오
위기 경험	예	정체감 성취(위기 해결)	정체감 유예(위기 현재 진행 중)
	아니오	정체감 유실(위기경험 없음)	정체감 혼미(위기경험 없음)

(출처: Marcia, 1991)

특히 Marcia(1991)의 정체감 지위 유형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체감 유예(identity moratorium) 단계로 정체감위거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다. Marcia(1991)는 대학생은 인위적으로 청년기가 연장된 상태로 정체감위기(Identity crisis)를 경험하는 것인데, 여기서 위기란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이 병리적 측면이 아닌 자신의 자아의 재정립을 위한 싸움으로 보았다. 때문에 정체감 확립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깊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Erikson, 1968), 반성적 사고(Dewey, 1933)를 통해서만 정체감위기를 극복하고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다(박소연, 김한별, 2012).

결국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자기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자기성찰의 시작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성찰적 질문을 통해 자기를 반성하고 그 위에 새로운 모습과 위치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정재순, 2019).

성찰을 '나'와 대상의 관계로 의미를 해석하는데, '나'라는 말에는 이미 '너'를 전제하여 '나'안에는 '나와 너'의 존재가 함께 들어가 있으며, 관계적 존재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박세원b, 2007). Sullivan(1953)은 '의미 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를 통한 긍정적, 지지적, 긴장해소 경험을 통해 안전감을 형성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Laing(1965)은 정체성 인식을 위해선 타자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Buber도 나의 존재에 대해서 타자가 확인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자기성찰에는 스스로 비판하기 위한 성찰이 아닌 변화와 성장을 위한 성찰로서, 자신과 내면의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지각, 탐색, 이해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심지현, 2017).

따라서 대학생의 정체감위기 극복을 위해선 자기성찰 경험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자기성찰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다(정재순, 2019). 즉 자기성찰은 남이 결국 내가 되는 것이 관계로써 타자지향적 태도와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자기성찰 경험은 대학생 시기에 건강한 정체감 형성을 도움을 주어, 개인적 심리적 균형과 추후 성년기에 타자와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며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근간이 될 것이다.

2. 문학치료

문학치료는 문학을 활용한 심리치료로 볼 수 있는데, 변학수(2006)는 억압된 심층을 문학을 통해 드러내고 치유하는 일이라는 정의하였고, 정운채(2008)는 참여자가 가진 자기서사와 선정된 문학작품의 서사, 그리고 치료자의 서사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이 문학치료라 정의하였으며, 나동광(2009)은 문학작품 속의 화자 또는 등장인물을 통해 치료에 참여하는 사람의 정서와 감정을 공유하는 가운데 자신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하는 것이 문학치료로 정의하였다(송명희, 오영이, 2013). 또한 Hynes and Hynes-Berry(2012)는 상호작용 문학치료(Interactive Biblio, Poetry Therap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학치료란 문학을 촉매로 훈련받은 촉진자(문학치료사)와 참여자(내담자)간의 치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치료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손정희, 2020).

즉 문학치료는 작품을 매개로 감정이나 정서가 표출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화하고, 자기성찰과 인격의 변화를 유도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송명희, 오영이, 2013). 때문에 문학치료에서 활용하는 문학의 선별 기준은 예술적, 문학적 가치가 아니라 깨달음과 자아발견을 위한 도구, 즉 참여자들 개개인의 반응을 끌어내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이봉희, 2014). 따라서 문학치료는 서사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표출함으로써 자기성찰로 자기 이해가 가능하다. 서사는 결국 타자와의 관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체의 서사적 정체감은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박소연, 김한별, 2012). 때문에 자기 이해가 타자의 이해로 더 나아가, 타자와 진정한 공감을 경험을 통해 타자 이해와 수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감정표현 글쓰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글쓰기보다 자기성찰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은 최근 문학치료에서도 점차 증명되고 있다(이봉희, 2014). 때문에 문학치료에서 글쓰기, 즉 텍스트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텍스트는 자신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고 타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텍스트는 일종의 매개체로서 자신을 파악과 더불어 의미에 대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자신의 심층에 놓여 있는 무의식적 자아를 이해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계 속의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즉 문학치료 과정을 통해서 참여자는 행위와 감정에 대한 이해를 찾게 되며, 나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의미도 찾게 되는 것이다. 결국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텍스트로 만들게 되며, 개인적인 해석의 과정에서 자기성찰이 일어나고,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게 된다(변학수, 2006).

III. 질적 메타분석

질적 메타분석은 개별 질적 연구물에서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이론의 생성, 확장적 해석 도출, 모형 등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Walsh and Downe, 2005). 기존에 유사한 주제로 연구된 개별 질적 연

구물을 종합, 정리,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이기 때문에 학문의 정성적 발견에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Sandelowski, 1997).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학치료 참여 자기성찰 경험 속에서의 정체감 변화 과정을 성찰 경험 위주로 살펴본 개별 질적 연구물들은 있으나, 이를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연구한 사례는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건강한 정체감 형성에서의 문학치료에서의 자기성찰의 의미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대학생 대상 문학치료 혹은 인문융합치료 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연구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blit and Hare(1988) 인용 및 나장함(2008)이 제시한 모형을 근거로 연구 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방법 절차와 과정은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질적 메타분석 연구방법 절차 및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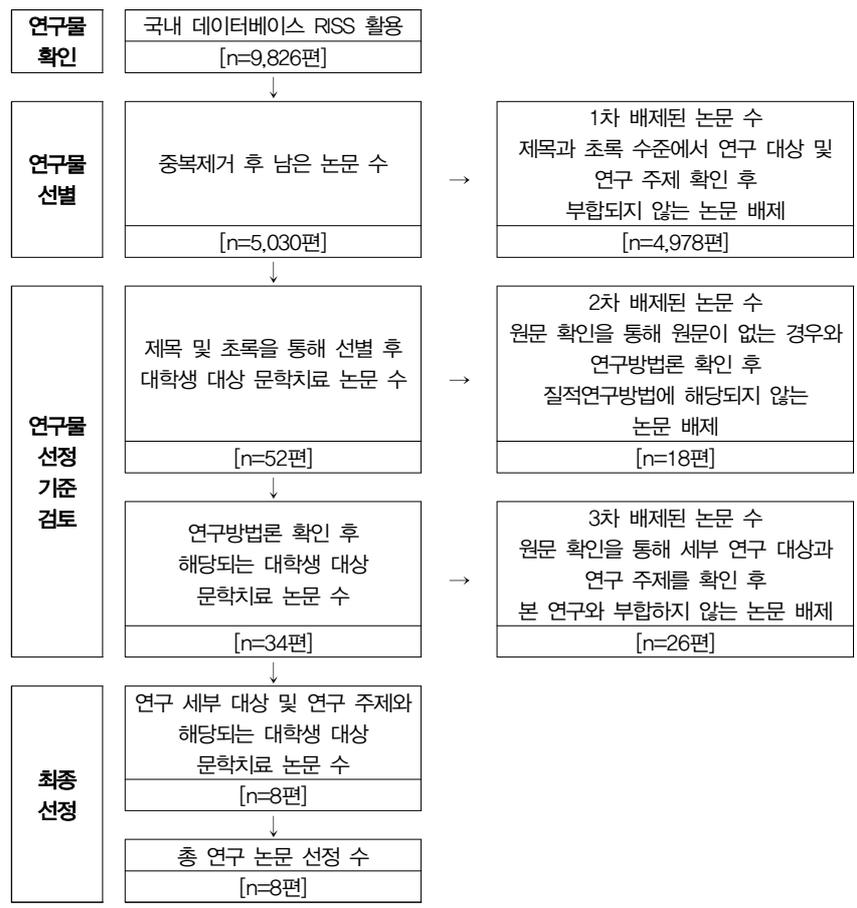
단계	연구방법 절차	과정
1단계	연구기획과 연구 프로토콜 작성	대학생 대상 문학치료 참여 경험
2단계	관련 연구물의 탐색	국내 데이터베이스인 RISS 활용
3단계	포함과 배제의 준거 설정	연구주제 및 방법의 적합성 확인
4단계	개별 연구 내 분석	개별 연구물의 해석적 비유 탐색
5단계	개별 연구들의 개념 사례 간 분석틀 마련	개별 연구물들의 비유, 어구, 아이디어, 개념들을 수합한 목록 마련
6단계	개별 연구들의 개념 사례 간 비교 분석	분석 실시 및 기술적 주제와 종합적 주제 도출
7단계	전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해석	확장적 해석 발견 및 새로운 해석 가능성 생성

(출처: 김명희, 2021)

1단계는 질적 메타분석에서는 학술지 논문만 분석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주장한 내용을 근거로(나장함, 2008), 본 연구에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중복을 고려하여 학술지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대학생 대상 문학치료 연구가 미흡한 것을 감안하여 KCI 등재 후보, 모든 연도를 설정하여 검색하고자 하였으며, 질적 연구물 선정 기준은 김영순 외(2018)가 제시한 융합된 질적 연구물까지 포함하여 현상학적 연구, 문화기술지, 민속방법론, 생애사연구, 내러티브 탐구, 사례연구, 근거이론, 실행연구, 핵심집단면담, 델파이 조사, 합의적 질적연구, 혼합연구(양적+질적)를 모두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국내데이터베이스인 RISS를 활용하였다. 검색 키워드로는 국문으로 '문학치료, 글쓰기치료, 저널치료, 시치료, 이야기치료, 독서치료, 인문치료, 동화치료, 경험쓰기, 소설쓰기', 영문으로 'biblio therapy, Writing therapy, journal therapy, poetry therapy, narrative therapy, reading therapy, reading therapy, humanities therapy' 총 17개 키워드를 통해서 연구물을 검색하였다. 3단계에서는 PRISMA에서 제시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보고지침을 근거로 포함과 배제의 준거를 설정하였으며 (Moher et al. 2009), 포함과 배제의 준거 설정 과정은 [표3]와 같다. 다음으로 4~6단

계에서는 개별 연구들의 분석, 개념 사례 간 분석틀 마련 및 비교분석 과정을 통해 기술적 주제와 종합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7단계에서는 전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종합적 해석을 도출하였다.

[표 3] 포함과 배제의 준거 설정 과정



(출처: 김명희, 2022)

최종 분석 대상 연구물 기본 정보는 다음 [표 4]과 같다. 연구 참여자 정보에서 참여자 수, 연령 등 기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구물은 '-'로만 표기하였다.

[표 4] 질적 메타분석 대상 연구물 기본 정보

연구 기호	연구자명 (발행연도)	기본정보		
a	김수경 (2008)	연구 목적		대학생 자아정체감 확립에서의 독서치료 효과성 검증과 대학생의 심리 및 정서 문제 파악하고자 함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	혼합연구
			자료수집방법	질적: 자기평가 방식 활용, 현상학적 연구 양적: 사전사후 설문지
			참여자 수	남: 3명, 여: 2명 / 총 5명
			참여자 연령	23~25세
			문학치료 구성	글읽기, 글쓰기, 말하기
연구 결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독서치료 프로그램 성과, 효과를 입증함 독서치료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 과정을 통해 내면의 변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증명함		
b	박소연, 김한별 (2012)	연구 목적		대학생 대상 저널쓰기를 통해 자아성찰을 탐색하고, 어떻게 자아정체감이 형성되는지 발견하고자 함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	내러티브연구
			자료수집방법	질적: 참여자 생성 자료 수집
			참여자 수	남: 16명, 여: 14명 / 총 30명
			참여자 연령	20~27세
			문학치료 구성	글쓰기, 인터뷰
연구 결과		대학생은 저널쓰기를 통해 독립된 자아로 자신의 가치를 집중하게 됨을 발견함 있는 그대로 나를 발견하고 자기반성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성찰이 일상화되고 내재화됨을 발견함		
c	권성혜 (2015)	연구 목적		문학작품 활용 및 타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치료적 요인을 사례로 분석하고,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돕는 방안으로 통합적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	사례연구
			자료수집방법	질적: 인터뷰 및 소감문, 회기별 보고서
			참여자 수	남: 2명, 여: 6명 / 총 8명
			참여자 연령	20~23세
			문학치료 구성	글읽기, 글쓰기, 말하기
연구 결과		통합적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비임상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정체감 확립에 도움을 줌 통합적 문학치료 프로그램은 대학생에게 치료적 효과가 있었음		
d	박해랑 (2015)	연구 목적		대학에서의 교과목 연계로 글쓰기치료 근간 마련 목적과 대학생 대상 글쓰기치료의 효과 입증을 위해 연구하고자 함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	혼합연구
			자료수집방법	질적: 글쓰기 자료 양적: 사전사후 설문지
			참여자 수	총 6명
			참여자 연령	-
			문학치료 구성	글쓰기, 마음챙김 명상
연구 결과		대학생 대상 글쓰기 치료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쓰기 교과목에 글쓰기치료 연계를 제안함		
e	정성옥, 김성범 (2015)	연구 목적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글쓰기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고, 자아정체성 하위변인과 관련성 분석을 목적으로 함
		연구	연구방법	내러티브연구

		방법론	자료수집방법	질적: 글쓰기, 인터뷰, 관찰 자료
			참여자 수	남: 3명, 여: 1명 / 총 4명
참여자 연령	20~26세			
문학치료 구성	글쓰기, 인터뷰			
		연구 결과	대학생 대상 문학치료가 주체성 발휘,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향상, 목표지향성 의지, 친밀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f	정성옥, 채연숙 (2018)	연구 목적	비임상군 대학생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글쓰기치료를 통해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 서술정체성 형성 의미 탐색 목적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질적: 글쓰기 자료
		참여자 수		총 2명
		참여자 연령		-
문학치료 구성	글읽기, 글쓰기, 그리기			
연구 결과	대학생 시기에 성찰과 변화를 겪어야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g	이연옥 (2019)	연구 목적	독서치료가 대학생 역량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대학생 역량을 지원하는 독서치료 교과목 운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함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질적: 글쓰기, 토론 자료 양적: 독서치료 참여집단, 비참여집단 비교
		참여자 수		총 56명
		참여자 연령		-
문학치료 구성	글읽기, 글쓰기, 말하기			
연구 결과	독서치료는 대학생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대인관계, 문제해결, 성취동기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h	전보라 (2020)	연구 목적	'꽃들에게 희망을' 동화를 통해 대학생의 경험을 탐색하고, 독서치료에서의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에서 어떤 치유적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고자 함	
			연구 방법론	연구방법
		자료수집방법		글쓰기, 관찰, 심층면담 자료
		참여자 수		남: 4명, 여: 6명 / 총 10명
		참여자 연령		19~25세
문학치료 구성	글읽기, 글쓰기, 말하기			
연구 결과	대학생 대상 동화 매체 활용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되며, 대학생 대상 동화 프로그램은 심리 및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출처: 김명희, 2021, 재구성)

IV. 연구 결과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성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찰 경험은 개인적 정체성 변화에 따른 성찰 경험과 사회적 정체성 변화에 따른 성찰경험으로 구분하여 총 8개의 기술적 주제, 4개의 종합적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주제 도출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질적 메타분석 기술적 주제 및 종합적 주제

구분	기술적 주제	종합적 주제
개인적 측면	새로운 나를 직면	성찰을 통한 내면 발견
	타자민감성으로 인한 자기부정성	
	자기성찰을 통한 깨달음	성찰을 통한 내면 치유
	자기 긍정성과 자존감 향상	
사회적 측면	목적 없는 삶	성찰을 통한 타자지향성 태도
	내 삶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	
	'나와너'의 만남	성찰을 통한 타자지향성 실천
	타자지향적인 삶 추구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감 변화에서 나타난 성찰 경험은 개인적·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주제는 '새로운 나를 직면', '타자민감성으로 인한 자기부정성', '자기성찰을 통한 깨달음', '자기 긍정성과 자존감 향상'으로 성찰 경험이며, 종합적 주제로는 '성찰을 통한 내면 발견'과 '성찰을 통한 내면 치유'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주제는 '목적 없는 삶', '내 삶에서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삶', "'나와너'의 만남', '타자지향적인 삶 추구', 종합적 주제로는 '성찰을 통한 타자지향성 태도', '성찰을 통한 타자지향성 실천'으로 도출되었으며, 이에 관한 분석 대상 질적연구물 간 해석은 [표 6]와 같다.

[표 6] 분석 대상 질적연구물 간 해석

구분	기술적 주제	분석 대상 질적연구물 간 해석							
		a	b	c	d	e	f	g	h
개인적 측면	새로운 나를 직면	○						○	○
	타자민감성으로 인한 자기부정성	○					○		
	자기성찰을 통한 깨달음		○	○	○			○	
	자기 긍정성과 자존감 향상		○	○		○	○	○	
사회적 측면	목적 없는 삶								○
	내 삶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	○	○	○				○	
	'나와너'의 만남			○	○			○	
	타자지향적인 삶 추구	○			○	○		○	

분석 대상 질적연구물 간 해석을 바탕으로 주제 분석한 표는 [표 7]와 같다.

[표 7] 분석 대상 연구물 주제 분석표

구분	기술적 주제	연구 기호	주제 분석
개인적 측면	새로운 나를 직면	a	무의식 속 부정적인 나, 나도 몰랐던 상처받은 영혼, 새로운 나와 직면
		g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 나라는 사람을 한 발짝 더 가까워서 볼 수 있게 된 것
		h	말 한마디 못하고 삭히고 있는 나의 모습
	타자민감성으로 인한 자기부정성	a	타인의 반응과 시선을 신경쓰고 의식하는 편, 여전히 자신감 부족,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위축
		f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
	자기성찰을 통한 깨달음	b	꿈을 이루기 힘들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좌절
		c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전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짐
		d	학생신분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g	더 큰 상처가 두려워서 도망친 나의 모습
	자기 긍정성과 자존감 향상	c	자신감이 생김
		e	나는 믿을 만한 사람
		f	기죽지 않고자 함
		g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 자신감과 용기가 생김
사회적 측면	목적 없는 삶	h	목적없이 기동 위로 올라가는 모습, 남들이 하는 대로, 진로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했음
	내 삶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	a	스스로 이겨내는 삶,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삶
		b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됨, 부족해도 채워가는 삶, 도전하는 삶
		c	내가 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며 살아가는 삶
		g	스스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위해 실천하는 삶
	'나와너'의 만남	c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 나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공감해줘서 고마웠음, 함께 공감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낌, 집단원들의 변화를 같이 느껴서 기쁨, 같이 소통하는 즐거움
		d	친구들의 생각을 알게 되어서 기쁨
		g	많은 사람들과 만남으로 행복함
	타자지향적인 삶 추구	a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것, 독서치료 수업에서 알게 된 좋은글귀를 함께 나누고자 함
		d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잘해주고자 함
		e	다름 사람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음,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음
		g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1. 개인적 정체성 변화에 따른 성찰 경험

1.1. 성찰을 통한 내면 발견

1.1.1. 새로운 나를 직면

문학치료를 통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은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권성혜, 2015). 이러한 자기성찰 과정을 통해 대학생들은 스스로가 큰 문제가 없다고 느끼더라도 문학작품을 통해 억압되어 있는 마음의 상처나 고통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김수경, 2008).

“책을 통해 나는 까발려지고 있었다. 꺼림칙한 기분도 들었다. 정작 나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느꼈던 소소한 것들이 어느새 내 무의식 속을 파고들어 부정적인 나를 만들고 있었다.” (#a:228²⁾)

“나에게도 나도 잘 모르는 상처받은 영혼이 존재했다.” (#a:232)

“책에 나온 상황에 나를 대입시켜 봄으로써 내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겉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속은 정말 어둡고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다.” (#g:569)

전보라(2020)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대학생이 밟힌 애벌레나 땅에 떨어진 애벌레에게 동일시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그 기둥 속에 웬지 제가 다른 애벌레들에게 밟혀서 꿈틀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삭히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h:502)

자신의 마음의 상처나 고통 등 현재 자신이 가진 심리·정서적 문제를 확인한 뒤, 이를 통해 자기이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수경, 2008). 문학치료 참여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 이해의 경험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이연옥, 2019). 즉, 문학치료 참여를 통해 부정정서나 부정적인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자기성찰의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제공한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몰랐던, 혹은 알지만 모르는 척 했던 새로운 나와 직면하게 된다.” (#a:239)

“항상 내가 왜 우울한지 왜 자존감이 낮은지 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이유도 모른 채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나라는 사람을 한 발짝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다.” (#g:569)

2) 분석 대상 연구물에서 발췌한 연구참여자의 자료에 대한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a:228’라고 표기된 경우, #a는 Ⅲ.질적 메타분석에서 [표4]의 질적 메타분석 대상 연구물 기본정보 목록에 제시된 연구 기호에 해당하며, 228은 해당 논문에서 내용을 발췌한 쪽수를 의미한다.

1.1.2. 타자민감성으로 인한 자기부정성

대학생들은 문학치료 동일시에서는 대부분 대학생들이 기술한 자신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타자민감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Macia(1991)의 자아정체감 지위 이론에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한 '정체감 유예'이거나 혹은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정체감 유실', '정체감 혼미'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자아정체감이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타인의 시각이 더욱 중요해져서 타인의 시각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치료에서 동일시 경험을 통해 자기 이해 과정을 통해 자아를 탐색을 가능케 하며,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음을 깨닫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나는 내가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 타인의 반응을 크게 신경 쓰는 편이다. 버림받음의 뒷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a:233)

"타인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조금은 신경을 쓰는 편이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한다. 내가 정말로 마음을 여는 친구는 몇 명되지 않는다." (#a:225)

"그리고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그래서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을 많이 쓴다. 특히 행동을 조심하는 편이다. 그래서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인다." (#a:226)

대학생들은 문학치료 참여 과정에서 자기부정성과 낮은 자존감을 발견하였다. 과도한 경쟁 환경에 놓여있는 대학생들이 타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생기는 좌절, 스트레스, 위축 등과 같은 감정을 바탕으로 생긴 자기부정성으로 인해 낮은 자존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성찰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나를 억압하는 것은 조금 많은 편이다. 우선적으로 자신감이 약해서 나의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많이 따라하는 편이다. 그러나 결과는 나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인 것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많아도 여전히 자신감은 부족하다." (#a:226)

"남들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도 모두 참견꾼이 나에게 채찍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란 것도 말이다." (#a:229)

"참견꾼은 '그것 봐 너는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오히려 걸으론 말은 안해도 속으로는 너를 엄청 싫어할 거야 너도 그걸 알고 있을 걸 그러니 너도 이젠 그만 포기하고 되는 데로 살아버려! ㅋㅋㅋ'라고 나를 더욱 위축 들게 만들어 버린다." (#a:231)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조금 힘이 든다. 다른 애들에 비해 나는 좀 덩벙대고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f:622)

1.2. 성찰을 통한 내면 치유

1.2.1. 자기성찰을 통한 깨달음

문학치료를 통한 성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반성 혹은 비판적 성찰은 자신을 다각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성하게 한다(박소연, 김한별, 2012). 즉, 자기성찰 과정이란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는 과정으로써 자기 성장의 기회이자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문학치료는 문학작품을 통해 자신의 느낀점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자기 방어기타 치료들에 비해 적으며, 스스로 감정의 정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통찰 및 성찰할 수 있는 치유의 성격이 강하다(김수경, 2008). 이에, 박소연, 김한별(2012)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이 글쓰기를 통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성찰함으로써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은 문학치료 참여 과정을 통해 대부분 스스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이해하고, 수용하고자 하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어찌 보면 이는 꿈을 이루기 힘들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만든 핑계거리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내가 한 쪽에서 부족하면 다른 쪽에서 메우면 되는데 이를 하려 하지 않고 좌절만 하였다.“ (#b:169)

”상처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었는데 더 큰 상처가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뒷걸음 친 나를 깨닫게 해주었다.“ (#g:570)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깨달음을 계기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다짐을 보였다(권성혜, 2015).

”시험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대로 공부 좀 하자. 목요일엔 늦잠 잤다고 시험 바로 전 시간도 결석하고 놀았는데 하기 싫긴해도 어차피 해야 하는 건 한다. 아직 중간고사도 안쳤는데 결석이 너무 많은데 관리도 좀 하자.“ (#d:237)

”우선순위가 학교가 되어야 하는데 과제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b:170)

문학치료 참여 과정을 통해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감정 해소를 경험한 대학생들은 진정한 나를 탐색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 적은 시를 읽고, 궁금한 것은 묻고 답하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되어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전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c:70)

”나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냐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나’라고 OO대학교 학생 혹은 김OO과 같은 수식어가 붙지 않은 그냥 ‘나’라고...(중략)... 내 마음은 기쁘다고 말한다. 나는 지금 평온하다. 나의 심신은 그저 평화롭다.“ (#d:228)

”나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서 마음이 편하다.“ (#d:243)

1.2.2. 자기 긍정성과 자존감 향상

김수경(2008)은 연구 참여자가 문학치료 참여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여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 부정성이 높았던 대학생들은 문학치료 참여 경험을 통해 자신감 회복과 향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문학치료 참여 경험을 통해 자기 부정성의 원인이 타자민감성에 있었음을 확인하여, 자기 긍정성과 자존감 향상까지도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 이해에서 자기 수용성으로 확대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많이 살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어떤 것을 견뎌내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앞으로의 삶에도 자신감이 생긴다.” (#c:71~72)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믿어주는 만큼 보답할 자신이 있다.” (#e:192)

“나 또한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사랑받고 있는 존재임을 느꼈고 부딪히고 이겨보자는 자신감이 생겼다.” (#g:572)

문학치료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처의 원인, 상처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다가 문학치료에 참여한 후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찰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김수경, 2008).

“나의 구타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앓다가 여기 수업에서 말하고 나니 내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g:571)

“내가 힘들어하던 부분이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되었고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들었다.” (#g:571)

또한 박소연, 김한별(2012)은 저널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고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상처 치유와 자아 회복은 물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기 안죽고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요!” (#f:622)

이연옥(2019)에서도 문학치료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자기 긍정성은 건강한 개인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내가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나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했는데 용기를 얻게 되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지금껏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미뤘는데 이제 용기가 생겨 앞으로 전진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g:572)

“남과의 비교를 하면서 괜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지 말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의 장점과 능력을 믿고 그것을 발전시키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다.” (#g:570)

2. 사회적 정체성 변화에 따른 성찰 경험

2.1. 성찰을 통한 타자지향성 태도

2.1.1. 목적 없는 삶

Marcia(1991)는 ‘자아정체감 유실’ 단계란 대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타자의 기대와 가치에 부합하고자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전보라(2020)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동화를 읽고 대부분 기등을 무작정 오르는 애벌레에 동일시하는 모습은 사회적 기준 혹은 부모님의 기준에 맞춰진 ‘자아정체감 유실’ 단계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 투영된 것으로 성찰하였다.

“저는 이 책에서 수많은 애벌레들이 목적 없이 기등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h:502)

“남들이 승진하니까 너도 해야지 남들이 결혼하니까 너도 해야지, 남들이 좋은 아파트 사니까 너도 사야지. 이거 다 애벌레 기등 맞죠?” (#h:504)

“저도 목적 없이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공부하고 따라 가다보니 결국 대학이나 학과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한 것 같아요.” (#h:502)

2.1.2. 내 삶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삶

문학작품을 통해 발달 과정상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서기자, 2012). 즉, 일상생활에서 생겨난 마음의 상처를 돌볼 수 있는 주체는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김수경, 2008).

대학생들은 문학치료 참여 경험을 통해 자기 성찰을 하고,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롭게 인식된 자아정체감을 나의 일상 안에 내재화하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게 된다(박소연, 김한별, 2012).

“하지만 내가 부딪혀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a:228)

“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마주볼 것이다. 나 자신을 마주 본 것처럼.” (#a:236)

“처음에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외향적인 것만을 표현하고 갖은 수식어를 모두 활용하여 나를 거창하게 표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b:166)

박소연, 김한별(2012)의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은 문학치료 참여 횟수가 거듭될수록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스스로 긍정적 자아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 유실’ 단계에 있는 대학생이 문학치료 참여 과정

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성찰함으로써 삶을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돕는다고 보았다.

“부족한 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겠다. 부족한 것을 발견하면 채워가는 내가 될 것이다.” (#b:168)

“시작도 하지 않은 채 포기한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한번사는 인생인데,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쯤은 도전을 해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설령 실패를 맛보더라도 훗날 후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b:169)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 낸 나 자신에게 칭찬하고 싶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서 살아가고 싶다.” (#c:72)

이연옥(2019)의 연구에서도 문학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고민을 탐색하고, 고민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발견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 이해, 자기 수용에서 더 나아가 실천 행위까지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스스로가 어쩔 땐 어색하기도 하다. 아직도 아침마다 예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속스럽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해보기로 했다.” (#g:570)

2.2. 성찰을 통한 타자지향성 실천

2.1.2. ‘나와너’의 만남

무엇보다도 문학치료에서의 공감 경험은 진정한 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였음을 깨닫고 위안을 얻게 된다. 이러한 공감 경험은 자신 스스로 이상하거나 이질적이라 느끼지 않게 된다 (Rogers, 2007).

“활동을 하고 함께 피드백을 나누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고, 더 의연하게 대처하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다.” (#c:74)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니 주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경청하는구나는 느낌을 받았고 또 내 이야기에 공감해주는구나 라고 느꼈다. 정말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다.” (#g:573)

문학치료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진정한 공감 경험을 통해 공통적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충족감을 느끼며 관계맺기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uber(1974)가 말하는 진정한 ‘나와너’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음에 집단에서 얻어가고 싶은 것은 소통과 공감이었었는데 내가 먼저 다가가거나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했고.” (#c:74)

“문학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변화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단원들의 변화도 같이 느끼며 함께 기

빠랄 수 있어서 좋았다.” (#c:73)

“친구들의 생각을 읽었다 행복하다 숨을 쉬는 것 같다.” (#d:242)

박소연, 김한별(2012)의 연구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것이 익숙한 현대 사회에서는 저널쓰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일관되게 입증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타자와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성숙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권성혜(2015)의 연구에서도 참여자와의 공감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진정한 공감 경험은 자아정체감 형성에서의 개인적,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정말 드문데 나를 열면서 남들과 같이 소통 하는 것이 무척 재밌었다. 아마도 사람들 앞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한 것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 일인지 알게 된 것 같다.” (#c:75)

“어릴 적 나는 언제나 공허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행복해졌다.” (#d:243)

Buber는 ‘나’는 ‘너’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매개로 해서만 버전한 ‘나’가 된다고 하였다(Buber, 1974). 서로 현존하는 둘을-위한-존재(Zu-zweien-Sein)로서 대화론 속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한 사람의 만남이 매번 실현되고 인식되는 본질로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에 좀 더 가까워질 것이라 하였다(Buber, 1982). 이러한 맥락에서 Buber가 말한 만남을 통한 치유란, 진짜 자기로 타자와 소통하는 것이 가짜 자기로서 타자와 소통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Rogers, 2007).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사고와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감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동받아 눈물이 내려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 (#g:574)

2.2.2. 타자지향적인 삶 추구

Rogers(1995)가 말하는 공존하는 사회란 각자 구별된 개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배려와 헌신이 기반이 된 사회이다. 이에 문학치료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기 이해에서 타자 이해와 수용, 더 나아가 타자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자신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나를 사랑 할 수 있게 되었기에 남을 사랑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a:236)

“언젠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남들의 상처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게 옆에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으로...” (#a:233)

”지금 당장 남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엔 무리겠지만 서서히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키운 뒤, 사랑이라는 열매를 수확 할 것이다.“ (#a:236)

타자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나와 같은 대학생 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환경을 가진 타자들에게도 확대되었다.

“내가 독서치료 수업에서 알게 된 책들을 권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낮에는 교육을 받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신다. 아무래도 책을 읽는 것이 힘들 것 같아 몇몇 부분만 발췌를 했다. 화장실이 나 휴게실에 달마다 그런 글들을 붙여둘 계획이다” (#a:237)

문학치료 참여 과정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되돌아보며, 자신의 상처를 발견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을 볼 수 있다(박해랑, 2015).

“그동안 나는 문제없이 자랐다고 생각되지만 알게 모르게 가족과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었는지 몰라.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대해보자..” (#d:237)

이연옥(2019)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자와 함께 진정한 공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타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을 하고자 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전보라(2020)의 연구에서는 문학치료 참여 과정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탐색하여 타자지향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책에서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상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서 그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g:573)

“단 한명이라도 누군가가 나의 뒤에 있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e:185~186)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e:189)

V. 종합적 해석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대학생의 건강한 정체감 형성에서의 문학치료 참여 속에서의 자기성찰 경험의 의미를 개인적·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기술적 주제와 종합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된 도출을 바탕으로 종합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은 문학치료 참여 과정에서 자기성찰을 통해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의 건강한 정체감을 형성되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자기성찰은 참 자아 발견을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 반성 혹은 비판적 성찰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문제에 대해 비판적 반성 혹은 비판적 성찰로 자신을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반성하게 된다(박소연, 김한별, 2012). 여기서 비판적 반성 혹은 비판적 성찰에서의 자기성찰 과정은 스스로를 비판하기 위한 성찰이 목적이 아닌, 변화와 성장을 위한 성찰을 해야 한다. 즉 자기성찰은 자신과 내면의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자각, 탐색,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심지현, 2017).

뿐만 아니라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힘들어하던 주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 즉 문학치료에 참여하게 되면서 대학생들은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성찰하게 되며,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기성찰 과정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떠한 문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의 자신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행동하는 것이다. 내 안의 낯선 나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응시해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 내부 세계로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담담한 시선으로 보는 것'이다. '과거의 나'를 넘어선 '또 다른 나', 과거를 벗어난 '미래의 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기성찰의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배철현, 2016), 이는 대학생의 정체감 확립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심지현, 2017).

그러나 자기성찰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타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문학치료 참여 안에서의 참여자와의 공감과 소통이 중요하며, 이는 자신의 삶과의 실천과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기성찰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필요하며, 나를 타자로 인하여 나의 존재 자체를 발견하고 만드는 과정임을 문학치료 참여 속에서 자기성찰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성찰은 나와 대상을 관계의 의미로 해석하여, '나'라는 말에는 이미 '너'를 전제하여 '나' 안에는 '나-너'의 관계이며, 관계적 존재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박세원b, 2007). 때문에 성찰의 과정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학치료 참여 과정에서 자기성찰 경험은 Marcia(1991)가 제시한 대학생의 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지 않았던 대학생들에게 자기성찰의 경험을 제공해줌으로서, 정체감 유실과 정체감 혼미의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이 정체감 유예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체감 유예의 단계에서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정체감 성취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본 연구에서 발견하였다. 때문에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감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성찰 경험을 다룬 질적 메타분석 연구를 통해서 문학치료의 기본요소인 동일시, 카타르시스, 통찰의 단계에서 자기성찰 경험은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문학치료에서는 읽고 여행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경험하고, 읽고 쓰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변학수, 2006), 자기의 발견은 타자의 발견까지도 이어지고, 타자의 발견은 결국 타자지향적인 태도와 실천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rikson(1980)은 발달과업 중에서도 청년기의 정체성 확립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이는 청년기의 정체성 위기 경험을 잘 극복해야 만이 안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후에 독립된 성인으로서 개인의 고립이 아닌 타자와 친밀감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구조로 자기성찰을 통해 건강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더 어려워진 현시점에 대학생들의 건강한 정체감 확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학생들이 자기성찰을 통해 건강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타자와 소통하고 연대하며, 결국 타자지향적인 삶을 추구하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자기성찰을 기반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예술심리치료 프로그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 관심,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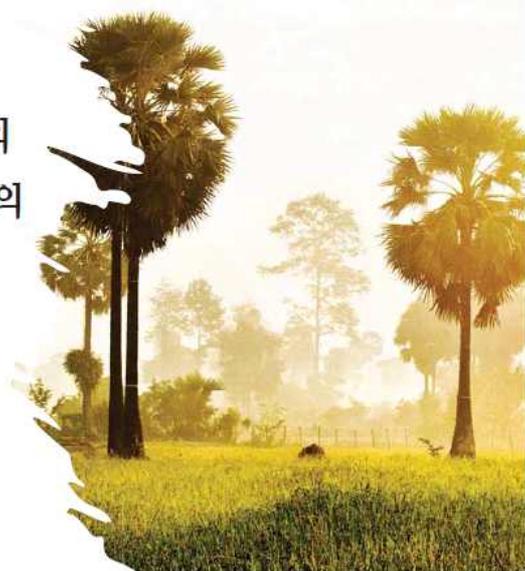
■ 참고문헌

- 권성혜. 2015. 대학생의 감정해소를 위한 통합적 문학치료 집단 프로그램 효과 연구. 청소년행동연구. 20. 53-79.
- 김명희. 2021.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공감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6). 537-561.
- 김수경. 2008. 대학생을 위한 독서치료의 적용과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13-245.
- 김수연. 2009. 자기성찰을 위한 소설 교육 연구: 고등학교『문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 김진희, 강진숙, 정경희, 정소민, 조진경, 조현영, 최승은, 정지현, 오세경, 김창아, 김민규, 김기화, 임한나. 2018. 질적연구의 즐거움. 서울: 창지사.
- 김정용. 2017. 아동 청소년 문학과 상호문화교육.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춘경, 변학수, 채연숙. 2006. 통합적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우울과 생활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103-125.
-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25(2). 51-89.
- 박소연, 김한별. 2012. 대학생의 저널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과정에서의 자아정체감 형성 경험 분석. 교양교육연구. 6(1). 153-178.
- 박세원. 2007. 초등학생의 존재론적 탐구를 돕는 성찰적 교육과정 구성 방안. 초등도덕교육. 25. 117-146.
- 박해랑. 2015. 대학생을 통한 글쓰기의 치료적 효과 연구. 문화와 융합. 37(2). 215-256.
- 배철현. 2016. 심연: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경기도 파주: 21세기 북스.
- 변학수. 2006.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 보건복지부. 2020. 자살예방백서. 발간번호 11-1352000-001635-10.
- 손정희. 2015. 문학, 치유 그리고 스토리텔링. 도서출판 동인.
- 송명희, 오영이. 2013. 시쓰기를 통한 문학치료 사례연구: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8. 121-154.
- 서기자. 2012.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독서 치료적 적용. 문학치료연구. 25. 75-101.
- 심지현. 2017. 중년 여성의 통합문학치료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수라. 2015. 중학생의 자기성찰 태도 향상을 위한 뇌교육 실행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영선. 2013. 문학치료와 영문학 연구: 독서(행위)의 영향에 관한 소고. 문학치료 연구. 29. 265-295.
- 이연옥. 2019. 독서치료가 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561-580.
- 장혜라. 2015. 성인들의 자서전적 기억을 통한 심리사회적 발달: 서술적 정체성과 적용,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미정. 2013. 대학생의 자아성찰을 위한 변형시 쓰기의 치료적 효능. 문학치료연구. 26. 135-159.
- 전보라. 2020. 동화를 활용한 대학생 독서치료의 경험적 사유와 의미 분석: ‘꽃들에게 희망을’ 작품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3). 491-514.
- 정성욱. 2016. 문학치료적 글쓰기와 관계적 자아정체성의 내러티브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성욱, 채연숙. 2018. 새로운 가능성으로서의 서술정체성: 대학생의 문학치료적 글쓰기 텍스트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2). 615-628.
- 정운채. 2008.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 9. 257-258.
- 이봉희. 2014. 글쓰기 치료: 소설 고쳐 쓰기를 통한 자아성찰 사례. 새국어 교육. 80. 339-360.
- 정재순. 2019. 기독교적 자아성찰을 위한 시 치료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래채. 2000. 초등학생의 자기성찰 프로그램이 감성지수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corn, Jr, Marshall. 2001. Ideological Death and Grief in the Classroom: Mourning As a Prerequisite to Learning.

- JPCS 6(2). 172-180.
- Alexandra Robbins., & Abby Wilner. 2001. Quarterlife Crisis: The Unique Challenges of Life in Your Twenties. 김난령 역. 2002. 청년 위기. 풀빛.
- Bilsker, D., & Marcia, J. E. 1991. Adaptive Regression and Ego Identity. *Journal of Adolescence*. 14(1). 75-84. 265-295.
- Buber, M. 1974. Ich und Du. 김천배 역. 2020. 나와 너. 대한기독교서회.
- Buber, M. 1982. Das Problem des Menschen. 윤석빈 역. 2009. 인간의 문제. 도서출판길.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22-2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Dewey, J. 1933. How we think: A restatement of the relations of reflective thinking to the educative process(2nd ed.). Boston: D. C. Heath.
- Frankl, V. E. 1967.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Selected papers on logotherapy. NY: Washington square press.
- Hynes, Arleen McCarty and Mary Hynes-Berry. 2012. Biblio/PoetryTherapy-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3rd Ed. St. Cloud, MN: North Star P of St. Cloud.
- Hynes, A. M., & Hynes-Berry, M. 2012. Biblio/Poetry therapy: the interactive process: a handbook (3rd ed.). St Cloud, MN: North Star Press.
- Laing, R. D. 1960. The divided self. London: Tavistock.
- Noblit, G.W. & Hare, R.D. 1997. Meta-Ethnography: Synthesizing qualitative studies. Newbury Park. CA: Sage.
- OECD. 2021. OECD Health Statistics.
- Rogers. C. A. 1995. A Way of Being. 오제은 역. 2007. 사람 중심 상담. 학지사.
- Rubin. R. J. 1978.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rapy and Practice. London, Mansell.
- Sandelowski, M., and Emden, C. 1997. Qualitative Metasynthesis: Issues and Techniques.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4). 365-371.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Tajfel, H., and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33-48.
- Walsh, D., and Downe, S. 2005. Meta-synthesis method for qualitative research. *A Literature review*. 50(2): 204-211.

캄보디아 초등교사양성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과 교육구성원의
인식 분석

LACH AKASY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I. 연구의 필요성

- 캄보디아 교육환경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특히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 30년간 내전 -> 교육제체 무너짐 -> 교사양성 시스템 구축되지 못하였다.
 - 여전히 교사의 상당수가 초등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역량이 낮다.
- 캄보디아 정부는 초등교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4년제 초등교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양성을 위한 교사정책을 실행하였다.
- 그러나 현재 캄보디아의 초등교사양성제도는 다양한 문제와 당면하고 있으므로, 교육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문제점과 개선정도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연구 문제

1. 캄보디아 초등교사양성제도의 변천과정과 최근의 동향은 어떠한가?
2. 캄보디아 초등교사양성제도의 변화에 대한 교육구성원의 의견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틀

- OECD 교사양성 국제비교연구(ITP)에서 사용된 분석틀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그림 1] 초등교사 양성제도 분석틀

2. 연구대상

- 연구대상은 학교 교사, 시·도교육청 관계자, 초등교사 양성기관 관리자로(총 9명) 구성된다.

3. 자료수집

- 반구조화 면담
 - 면담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되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초등교사 양성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면담 기간: 2021년 5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 **Zoom meeting** 프로그램을 활용한 면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의견 공유하였다.

III. 캄보디아 초등교사양성제도의 최근 개혁 동향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1863~1953) 중에 현대 교육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1953년 캄보디아는 프랑스로부터 해방한 후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1975년~1979년 **크메르루주(Khmer Rouge)** 공산주의 혁명단체의 쿠데타로 인해 **교육 체제가 붕괴**되었다.

❖ 학교 폐지(1975-1979)

-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파괴했다.
- 국민 전체를 군대 수용소나 집단 농장 또는 공사장에 밀어 넣었다.
- 대량학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학자, 교수, 교사** 등 교육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용케 살아남은 소수의 지식인들은 다른 나라로 탈출했다.
- 인구의 **1/3** 사망했다.



1. 초등교사 양성제도의 변천과정

	교육 재할 및 재건 (1979-1995)	세계화의 흐름에 맞는 교육제도로의 전환 (1995-2010)
사회적 배경	나라 재건	민주화, 경제 발전
교육정책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사 모집 "더 배운 이가 덜 배운 이를 가르친다"	교과서, 교육 인프라 구축, 교사교육 ↓ 교육기회 보장, 교육의 질과 효율성
교직의 매력	높음 (월급 받을 수 있는 진로는 교직밖에 없음)	낮음 (경제성장 -> 민간부문 월급이 더 높음)
입학제도	읽고 쓸 줄 아는 누구나 지원 가능	입학시험 응시
양성제도	외곽지역: 3+1 (초3 학력 갖춘 자가 1년 훈련 받음) -> 8+2 도시지역: 7+1 ->..... -> 11+2	외곽지역: 9+2 도시지역: 12+2 교과지식 향상 강조
자격 및 임용	바로 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시험 • 수습과정

○ 문제점

- 약한 교사 대우 정책 + 낮은 교직의 매력 -> 유능한 학생을 유치 못함
- 양성기과정 통합성과 연계성 없음
-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법
- 느슨한 자격 및 임용제도
- 도시지역은 교사과잉, 외곽지역은 교사 부족



낮은 교사의 질

2. 교육제도 개혁의 배경

- 2014년에 캄보디아는 2030년까지 **차상위소득국**으로, 그리고 2050년까지 **선진국** 진열에 오르도록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2015년 **아세안 통합**(ASEAN Integration) 때문에 인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 정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재 양성**을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하였다.
-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 교사전문기준 수립
 - **9+2 제도 폐지**
 - **4년제** 초등교사양성제도(12+4) 실행



3. 초등교사양성제도의 현황

- PTTC(**2년제**)가 18개
- TEC(**4년제**)가 2개

가. 교사양성기관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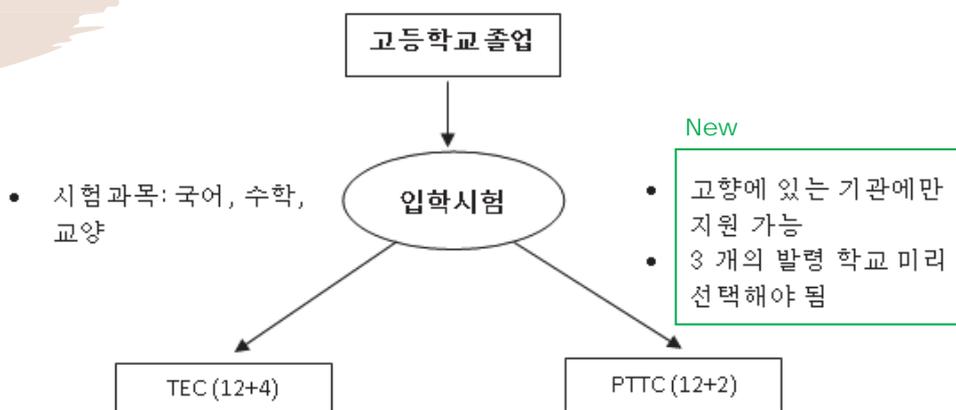
1) 유능한 후보생 유치

- 등록금이 **무상**이며 각 학생에게 매월 10\$ 장학금 제공

New

- **교사 월급과 지원금 인상**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배, 100\$ -> 300\$)
- 교사의 **요구 반영** 메커니즘
- 교사의 역량 개발과 승진제도를 연계한 **교직경로**를 마련
- 세계의 흐름에 맞추도록 **교사양성과정을 갱신**

2) 교사양성기관 입학



[그림 2] 캄보디아 교사양성기관 입학 과정

○ **교사양성 과정**

〈표 2〉 PTTC 교육과정의 구성

번호	구성영역/교과목	시수
1	전문 능력	524
	심리학	90
	교육학	159
	교육행정	58
	교직 윤리	30
	일반 소양	144
2	독서	43
	기본 지식	425
	국어	103
3	수학	90
	외국어	116
	ICT	116
4	초등교육의 교과내용과 교수방법	1209
	국어와 교수방법	232
	수학과 교수방법	247
	응용과학과 교수방법	101
	사회와 교수방법	436
	테크놀로지와 교수방법	90
5	생활기술과 교수방법	103
	논문연구(Thesis)	16
6	현장실습	552
합계		2726 (62학점)

- 교직과정 있음
- 전공과정 있음
- 교양과정 없음
- 심화과정 없음
- 모든 과목 다 필수
- 실습: 14주, 22주

〈표 3〉 TEC의 초등교사양성교육과정의 구성

번호	구성영역/교과목	학년별의 학점				총 학점	총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교육학	5	6	4	1	16	720
	교육과정학습	2	19	18	17	56	2520
	국어	-	3	3	3	9	405
	외국어	-	3	3	6	12	540
	수학	2	3	3	3	11	495
	과학	-	3	3	3	9	405
2	사회	-	4	3	-	7	315
	ICT	-	-	-	-	-	-
	미술	-	3	3	-	6	270
3	체육과 건강교육	-	-	-	2	2	90
	교과지식	21	2	3	4	28	1260
	국어	3	-	-	-	3	135
4	외국어	3	-	-	-	3	135
	수학	4	2	3	2	11	495
	과학	3	-	-	-	3	135
	사회	6	-	-	-	6	270
	ICT	2	-	-	-	2	90
5	교직에 필요한 언어능력과 쓰기 기술 향상	2	-	-	-	2	90
	통합교과: 체육실기	0	0	0	0	0	0
6	현장실습	0	3	5	10	18	810
	합계	30	30	30	30	120	5400

다. 교사자격 및 임용 (변화 많지 않음)

○ 졸업시험

- 예비교사는 학점을 다 이수한 다음에 졸업시험에 응시한다.
-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예비교사는 PTTC의 경우는 2학년을, TEC의 경우는 4학년을 재등록해야 된다.

○ 수습 및 임용

- 예비교사들은 졸업한 후에 입학할 때 신청한 학교 3개 중 한 학교에 발령되어 그 학교에서 1년간 수습을 한 다음에 교사자격이 부여되고 그 학교에서 임용된다.
- 담임교사가 되어 일반 교사들처럼 학급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수습과정 합격 여부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IV. 현행 초등교사양성제도에 대한 교육구성원의 인식 분석

영역	교육구성원의 인식
입학 제도	유능한 후보생 유지 ✓ 교직이 다른 직종보다 월급이 더 높음 -> 교직의 매력에 높아졌음 ✓ 교사 요구 반영, 경쟁적 시험, 개선된 양성과정, 교직경로 정책 -> 교사 효능감, 교직의 가치 증가
	입학시험 ✓ 시험의 난이도와 경쟁률이 높음 -> 유능한 학생만 선발할 수 있음 ✓ 발령 학교 미리 선택 -> 교사 전보 감소, 외곽지역 교사부족 문제 감소
양성 과정	교육과정 ✓ 전통적 교수학습방법 -> 학생중심 학습방법 > PTTC(2년제)에서는 교육내용 증가, 시간 부족 ✓ TEC(4년제)의 현장실습 시간 증가 - 해결책: 내용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시간 배분 -> 실무능력 강화하는 데 효과 있음 > PTTC 예비교사의 학업성취도 하락, 원격교육 시작 후 더 심해졌음
	졸업시험 > 불합격자 거의 없음 이유: - 시험문제가 단위 양성기관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렵지 않음 - 교육청이 모든 학생을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PTTC는 합격시켜주는 경향이 있음
자격 및 임용 제도	수습과정 > 수습교사 지원은 한계가 있음 ✓ 수습교사 월급 인상 - 현직교사 특히 외곽지역에 있는 교사는 새로운 교수방법을 잘 모름 ✓ 실무능력을 향상할 시간 충분히 제공 - 교육청의 연수-모니터링팀이 수습교사를 면밀히 지원하지 않으며, 외곽지역에는 거의 방문 안함
	임용 ✓ 임용시험 필요 없음 ✓ 임용시험 도입보다 수습과정에 더 집중할 필요 있음

VI. 결론 및 시사점

- 캄보디아는 경제발전과 인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 맥락에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교사 대우 정책, 경쟁률 높은 입학과정, 예비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전문성, 실무능력 등을 강조하는 양성과정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 그러나 PTTC에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행할 시간 부족과 학업성취도 하락 문제가 있으며, 교사자격 및 임용제도의 측면에서 교육부는 예비교사를 모두 졸업시켜 임용하고자 하며, 수습과정은 수습교사의 현장 적응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수습교사를 위한 지원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 교육과정의 문제

- 예비교사의 학업성취도를 향상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사교육자와 예비교사와의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 환경, 학습 성과까지 분석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개정된 뒤에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대면교육에서 원격교육으로 전환한 후에 어떤 측면들이 달라졌는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 원격교육의 맥락에서, 우선 원격교육의 장점과 한계점을 파악해야 한다. 예비교사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어떠한지, 교사교육자의 내용 제작과 교수·학습방법이 어떠한지, 교사교육자와 예비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양자가 속하는 환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의 학습 성과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 또한 대면교육 맥락에서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분석하여 이 두 맥락의 결과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한다.

❖ 졸업시험

- 현재 시행 중인 교사자격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부는 교사 부족한 지역에서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예비교사를 전체 졸업시험을 합격시켜주는 경향이 있다. 현재 자격제도가 어떤 효과와 영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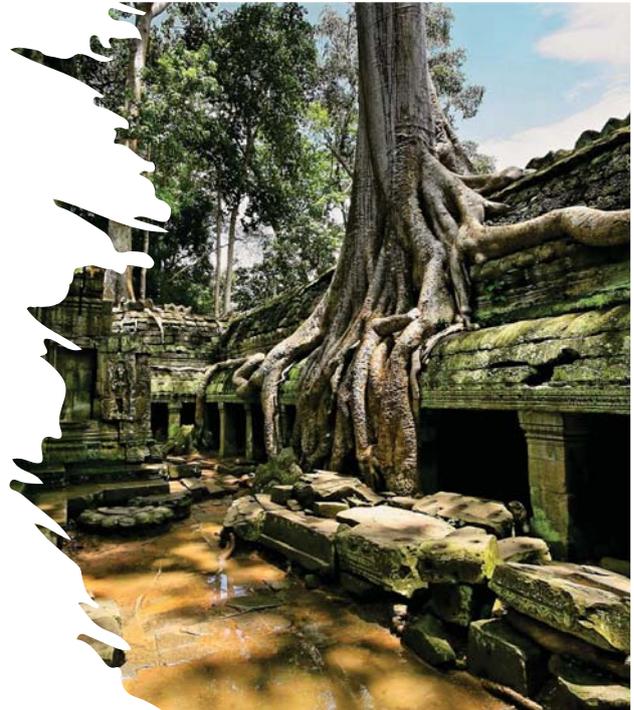
❖ 수습교사지원

- 수습교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습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 연수-모니터링 팀의 학교현장 요구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 담당 팀 또는 담당자를 배치하여 같은 곳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학교장과 경력교사(가능한 경우)와 함께 수습교사를 컨설팅하고 지원하여 단위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수습교사 지원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하나는, 한국에서 지역별로 **교사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캄보디아의 경우 교사양성기관 **입학단계부터 졸업 후 배치지역을 선정**하여 출발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최근 교육실습 학기제 등과 같이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습 강화가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캄보디아의 경우 **수습교사제** 등 교원양성기관 졸업이후 1년간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현대사회는 세계화와 정보화로 인한 상호교류 활성화로 이주민 유입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한류열풍, 국제결혼증가, '다문화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 형성, 다문화학생 수 증가하였고, 『유엔미래보고서 2050』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2050년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족이 전체인구의 약 2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이한샘, 202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들 가족의 생활실태나 문제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방향이나 개선 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며 특히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강성애 외, 2015).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여러 업무 중 한 영역을 담당한 실무자이고 다문화가족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그들 가족의 안정적 적응과 가족건강성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방문교육지도 업무를 하는 동안 그들의 내적 동기를 다룬 선행연구는 더더욱 없었다. 또한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지점은 삶의 어느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생애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연구로서 사회적 실천의 의미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실천은 생애 과정에 어떻게 발현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원, 자녀 한글교육지원, 자녀교육, 가족상담, 지역사회 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이 방문교육지도사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문교육지도사

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강성애 외, 2015).

방문교육지도사는 2008년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이 시작되던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활동을 통해 가장 가까이에서 한국 내 초기 다문화가정이 처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며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2006년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관리기관으로서 현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아동 양육도우미 양성하였던 것이 시초이다. 다문화 가정의 부적응이 사회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정착과 적응을 위해 2007년에 기획되어 2008년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 시작했다.

아동양육도우미 경력자들 다수가 방문교육지도사로 재 고용,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실질적 구심점 (정신희, 2020), 2015년 방문지도사에서 '방문교육지도사'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은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중 가장 대표적 사업,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으로 직접 방문교육지도사 파견. 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에게 한국어, 한국 문화 전달, 교육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2. 매킨타이어의 덕 이론

1970년대 매킨타이어(A. MacIntyre)를 중심으로 한 영미 윤리학자들에게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의 덕 이론에 대한 논의가 부활되었다. 그들은 '시대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도덕은 존재하는가?' 특히,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수긍할 만한 도덕의 원리와 체계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그리고 바로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윤리적 삶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의무'의 개념보다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는 '덕'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매킨타이어의 관심은 현대 사회의 도덕적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목적론적 윤리학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가였다. 그 과정에서 그가 주목한 개념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덕'이었다(이지항, 2015).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어떤 궁극 목적이나 궁극적 선을 상정하고 궁극적 선인 행복과 탁월성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러한 탁월성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성이 바로 '덕'이다(이인숙, 1996).

매킨타이어는 그의 저서 《덕의 상실: After Virtue(2007)》(이하 AV)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 개념들을 통해 알려지고 또 표현된 현재 삶의 방식의 관점에서만 무엇이 도덕적 근대의 곤경인지 이해할 수 있으며 또 도덕적 근대의 문화가 자신의 고유한 도덕적 질문을 계속 제기할 수 있는 자원을 결여하고 있고, 그래서 빈곤과 좌절의 피해를 입었고 그러한 곤경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목적론에 근거하여 행위보다 행위자에 중점

을 맞춘다. 즉 덕윤리학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우선하기보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박찬구, 2006). 따라서 덕윤리학에서의 일차적 평가 대상은 행위자의 내적 성품이다. 이는 평소 함양된 덕을 통하여 윤리적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보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는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매킨타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선이란 모든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그는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각자가 추구하는 것들 모두가 선이 될 수는 없으며, 선이 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그런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A. MacIntyre, 1984: 58). 이렇게 볼 때 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공유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선이 공유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이 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공유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매킨타이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덕과 선이 갖는 역사성이다. 매킨타이어는 덕과 선에 대한 역사적 측면을 견지하면서, 이들 개념이 갖는 보편적인 특성을 발견해야 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을 검토하고 그의 덕 이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3가지 요소를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그것은 실천(practice),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인 통일성(the narrative unity of human life) 그리고 전통(tradition)이다. 즉 덕이란 실천 속에 드러나는 선을 만들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인간 삶의 내러티브들에 통일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사회 전통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이지향, 2015).

첫 번째는 실천의 단계이다.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성질로, 덕은 내재적인 선을 성취하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내재적 선을 가지는 사회적 참여 즉 실천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매킨타이어가 말하고자 하는 내재적 선들은 실제로 탁월하다고 하는 경쟁의 결과인데, 그러나 그것의 성취가 실천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에 대한 하나의 선이라는 특징이며, 이것은 전체 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하였다(A. MacIntyre, 이진우 역, 2007).

덕을 통해 내면적 선에 참여함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실천은 그 범위가 다양한데, 이것은 곧 우리가 동시에 다양한 실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갈등을 초래한다. 한 복종의 의무는 다른 복종의 의무와 상반되는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즉 가정생활의 실천에 충실하게 되면 예술의 실천에 소홀해지기 쉽다(A. MacIntyre, 1997: 297).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이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의 권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정서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A. MacIntyre, 1997: 297). 따라서 매킨타이어는 “하나의 통일성으로 파악된 전체 인간 삶의 목적(telos)에 관한 지배적 개념 없이 덕들에 관한 우리의 개념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채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A. MacIntyre, 1997: 29). 매킨타이어는 이것을 ‘인간 삶의 내러티브적 통일성(the narrative unity of a human life)’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다. 이것이 덕의 두 번째 요소인 내러티브이다(박관수, 2006).

이처럼 매킨타이어는 덕을 실천과 관계해서만 아니라 인간의 좋은 삶의 관계 속에서 덕의 개념을 파악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만약 우리가 개인의 자격으로만 선을 실천하게 되면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A. MacIntyre, 1997: 324).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킨타이어는 전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매킨타이어는 개인이 덕을 통한 실천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개인의 삶이 그것의 한 부분을 이루는 전통에 의해 정의된 하나의 콘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박관수, 2006). 살아있는 전통의 단계의 개념은 실천과 내러티브적인 통일성을 통합하는 기능을 하며, 이는 역사적 공동체적으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살아있는 전통은 역사적으로 확장되고 사회적으로 구현된 논증이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전통을 구성하는 선들에 관한 논증이다. 한 전통 속에서 선들의 추구는 대대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진다.(A. MacIntyre, 이진우 역, 2007).

매킨타이어는 “덕은 하나의 습득한 인간의 성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또 그것의 결여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선들의 성취를 방해하는 그러한 성질이다.”라고 하였다. 즉 실천을 통해 덕은 드러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에 따라 매킨타이어의 ‘실천’을 다음 절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3. 매킨타이어의 사회적 실천

매킨타이어는 실천 개념을 이렇게 정의한다. “‘실천(practice)’이라는 말로 나는 정합적이고 복합적인 형식의 사회적으로 성립된 협동적 인간 활동을 뜻하는데, 그 형식에 적당하고 일부 그것의 규정이기도 한 탁월성 기준에 도달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 활동에 내재된 선(internal goods)이 실현되고, 그 결과 탁월성을 획득하려는 인간 능력과 그 활동과 관련된 목적과 선에 대한 인간 개념이 체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활동을 말한다.”(MacIntyre, 1984: 187). 그러면서 그 활동의 목적과 내용이 계속 규정, 재규정된다. 그 활동을 함으로써, 그 활동을 잘 하려 애쓰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적 선을 달성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소양(능력, 덕)을 가진 인간이 다시 그 활동의 내용과 목적을 재설정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실천이다. “왜 어떤 것은 실천이고 어떤 것은 아닌가. 건축은 실천이고 벽돌쌓기는 실천이 아닌 이유는 이것에 있다.” 그러면서 “가계, 도시, 국가 등의 인간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면 다” 실천이어서 “예술, 과학, 게임, 정치, 가족생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 모두” 실천이라 한다(1984: 187~188). 기능적 서술이라 할 잘 이해하는 것은 어떤 행위 항목이 실천이냐 아니야 배타적으로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개인적 우연적 일회적이지 않는 거의 모든 협동적, 사회적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실천의 방식으

로 이루어지느냐 아니야의 구분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것은 '탁월성' 개념으로 이끈다(김미영, 2010).

매킨타이어는 실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한 활동 형식에 적합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이 활동형식을 통해 정의된 탁월성의 기준을 성취하고자 하는 시도의 과정에서 이 활동형식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이 이 활동을 통해 탁월성을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의 힘과, 관련된 목표와 선들에 관한 인간의 표상들이 체계적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협동적 인간 활동의 모든 정합적, 복합적 형식을 뜻한다(MacIntyre, 1984: 278).

이러한 매킨타이어의 실천에 대한 개념을 라모어(Charles Larmore)는 “참여한 행동에 본래적으로 관련된 성공의 형식을 결정하는 탁월성의 기준을 공유하고 있는 협동적 인간행동이다”이라고 정리한다(Charles E. Larmore, 1987: 36). 이처럼 매킨타이어는 실천을 사회적으로 정당화된 정합적이고 복합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축구공을 차거나 벽돌을 쌓는 것, 그리고 순무를 심는 것은 실천이 아니지만, 축구 경기 자체나 건축, 그리고 농사는 실천이 될 수 있다(MacIntyre, 1997: 278).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이러한 실천의 규모는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매킨타이어는 인간 공동체의 창조와 유지에 작용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정합적 복합적 행동을 실천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 과학, 경기,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정치, 가정생활의 운영과 유지 등이 실천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MacIntyre, 1997: 278).

매킨타이어는 자신의 실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실천에 외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선”과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 개념을 사용한다. 매킨타이어는 이것을 장기 경기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매킨타이어에 의하면 장기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선은 두 종류이다. 그것은 '외면적 선'과 '내면적 선'이다. 여기서 '외면적 선'은 사회적 상황의 우연적 사건들에 의해 실천들과 외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성인의 경우 장기 경기를 통해 얻는 특권, 지위, 돈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외면적 선'을 얻기 위해서는 항상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것은 특정한 실천과 관계된 것은 아니다(MacIntyre, 1997: 279).

반면에 '내면적 선'은 장기 경기의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으로서 이러한 선은 다른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장기 경기나 이런 종류의 다른 경기에 참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선'의 예는 장기 경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략과, 집중력 등을 들 수 있다. '내면적 선'은 특정한 실천을 구성하는 행동들과 관련해서만 그 특징이 규정되는 것이다(Charles E. Larmore, 1987: 36).

매킨타이어는 '외면적 선들'의 특징은 그것들이 성취되었을 경우에 그 선들은 항상 그 선들을 성취한 사람의 소유라고 한다. 그리고 이 외면적 선들을 누가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외면적 선들을 소유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MacIntyre, 1997: 282). 반면에 내면적 선들은 이 선의 실천에 참여한 전체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한 선이다(MacIntyre, 1997: 282). 그리고 이 내면적 선은 덕이 없이는 인식될 수 없고 따라서 덕이 없이는 내면적 선이 수행될 수도 없다(MacIntyre, 1997: 282).

덕은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덕이 없다면 실천이 성립될 수 있는 내면적인 선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MacIntyre, 1997: 283). 덕이 없다면 외면적 선만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경쟁은 지배적이고 유일한 특징이 된다(MacIntyre, 1997: 289). 이처럼 외면적 선에 대한 관심과 추구가 우세하게 되면 그 사회 속에서 덕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박관수, 2006).

매킨타이어의 사회적 '실천' 개념은 사회적 '관행'을 의미한다. 이 사회적 관행의 개념은 다음 몇가지고 규정된다.

첫째, 사회적 관행은 내재적 선(internal goods)들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적 관행에 내재한 선이란 사회적 활동 안에 들어 있는 가치, 또는 활동 안에 자리매김 되어 그 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가치, 그 활동을 통해서만 경험되고 실현되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그 탁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치이다. 따라서 개인이 이러한 한 단위의 관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관행 속에 내재한 작동적 기준(standard)의 권위를 수락함을 의미한다(Mulhall and Swift, 1992: 83). 이것은 내재적 선을 규정하는 공동체의 표준과 권위를 수용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둘째, 사회적 관행이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포괄적인 내재적 선과 덕의 다양성은 인간 삶 속에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며 건전한 다양성으로 나타난다(Mulhall and Swift, 1992: 85).

이와 같이 매킨타이어는 공동체 담론에 기반한 사회적 관행을 통해 덕의 지향이 가능하다고 본다. 동시에 사회적 관행이란 고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전통을 인정하는 개방성을 갖는다고 본다.

『덕의 상실』 율기인이 이진우는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어떤 도덕적 전통이든 그것이 의미 있게 살아있다면, 그 전통의 복원과 재생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실천을 통해 일어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합리적 우월성이 아니라 이 삶의 밑바탕에 있는 가치들이다. 이러한 가치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형식과 제도에 대해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삶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치있는 삶이라고 하였다.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을 지배하는 형식과 제도에 알아야 하며 그의 저변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봄이 마땅하다.

III. 연구설계

1. 연구참여자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연령	교육	가족	종교	활동영역	활동기간	이전 직업
A	여	67세	학사	배우자, 1남2녀	없음	한국어교육, 가족생활교육	2008~2021 은퇴	중등 수학교사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B	여	72세	학사	배우자, 3녀	기독교	가족생활교육	2015~2021 은퇴	초등학교 교사

매킨타이어는 그의 저서 『덕의 상실』 서문에서 “덕의 전통이 주기적으로 재건될 때, 그것은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이 가정과 가계, 학교와 병원,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의 지역 형태들을 만들고 지속하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실천들에 종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재생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은 도덕 담론과 사회적 담론의 지배적 양식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양식 속에 표현되는 제도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덕의 발현을 하고 있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 자료수집을 위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차 심층면담시에는 개방질문을, 2차 심층면담 시에는 반구조화된 면담지를 활용하여 부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 심층면담은 2022. 2. 7~ 2022. 3. 7에 걸쳐 진행, 개인별 2회 씩, 회당 2시간 30분 가량 소요.

▶ 면담내용은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담 종료 후 즉시 전사함.

자료분석은 A4 약 100매의 전사자료를 질적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taguette”를 활용함

전사록 문장들에서 반복적으로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정보들을 동일한 범주로 구분하고, 범주화시킴

범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범주를 재구조화하였음.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소주제로 구성.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생애에 관한 연구로서, 그들의 생애에서 사회적 실천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2명의 연구참여자 인생 여정의 내러티브를 통해 유년기, 청소년기, 장년기 이후의 삶을 살펴봄으로써 관련된 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생애 경험을 주로 내러티브 기법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는 내러티브 연구 과정 및 절차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설계했다.

생애사연구는 한 개인이 살아온 모든 행위가 구조화된 자기상이며,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물이라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있다(Mandelbaum, G, 1973). 대도시에서의 소수민족의 일탈과 구조적 억압 등의 연구에 의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구조

적 약자와 직면하면서 성장한 학문(유철인, 1990)이라는 표현처럼 단순히 한 개인의 일생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그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이종현, 2006). 특히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오랜 업무 기간 동안 그들을 업무에 참여시키는 내재적 동기, 내재적 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에는 전반적인 삶의 모습, 즉 생애사를 연구가 적합하다 사료되어 채택하였다.

IV. 연구결과

〈표 2〉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실천 내용

대주제	소주제	실천내용
보고 배우는 삶	섬김의 본을 보여준 윗 세대 - 섬김	· 공장을 운영하며 친척을 거느린 아버지 · 장사꾼에게 사랑방을 내어 준 할아버지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 - 이타심	· 가족의 응원을 받다 · 강한 모성애를 발휘하다
책임과 사명감의 정신	틀을 깨고 세상에 나서다 - 용기와 사명감	· 학교에서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모성애) · 방문교육지도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 일대일 방문교육이 더욱 값지다
	나는 역사의 증인 자아정체성 및 자존감	· 민주화를 위한 중심에 서다 · 나는 독립유공자 후손
타인을 돕는 이타심 발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 측은지심과 보은	· 도움주는 삶을 꿈꾸다 · 지역사회에서 받은 것을 되돌려주다 · 사랑으로 바라보다
	나는 방문교육지도사 역지사지	· 친정엄마가 되어주다 · 상담가의 역할을 하다 · 힘든 일도 좋은 일도 자비를 써서 나누다

연구결과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소주제로 범주화됐다. 우선 ‘보고 배우는 삶’은 연구참여자들이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다양한 경험들이 내재적 선으로 작용하여 삶 속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발현되는 경우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실천 행위를 통해 자녀들이 본을 받는 모습도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주제는 ‘섬김의 본을 보여준 윗 세대’,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 등이다. 두 번째 대주제는 ‘책임과 사명감의 정신’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삶을 일반화시키는 대신 나름의 원칙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고, 이는 방문교육지도를 하는 동안 준거가 되어 서비스 대상 다문화가정을 더욱 책임감 있게 지도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주제는 ‘틀을 깨고 세상에 나서다’와 ‘나는 역사의 증인’ 등이다. 마지막 대주제는 ‘타인을 돕는 이타심 발현’이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오는 동안 이웃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로 환원하려는 모습과 방문교육지도를 하며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의 자녀에게 오롯이 전달하고픈 따뜻한 마음이다.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과 ‘나는 방문교육지도사’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 절에서는 각각의 소주제를 통해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사회적 실천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섬김의 본을 보여준 윗 세대- 섬김

연구참여자들은 각각 부모와 조부모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뿌리에서 비롯되는 탁월성이다. 즉 그러한 모습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내재적 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 당시엔 '학교방'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방은 일본말로 그 판자촌같이 생긴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시장에서 그 도매, 비누 치약 성냥 이런 거를 하는 도매. 지금 같으면 LG 같이.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창고 놓고, 가게는 작은 데서, 그래서 돈을 그때부터 인제 많이 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형제분이 다 부여 분이세요. 충청도. 다 그 시골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장사를 하니까 그 시골에 있는 사촌오빠 언니들이 이제 다들 저희 집의 인제 다같이 사는 거야. 그니까 저희는 뭐 대가족이에요. 늘 대가족이에요(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다. 어렵고 가난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아버지의 사업 덕분에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서울에서 각종 생필품 취급하는 도매상을 운영했는데, 지방의 친척들이 거의 모두 올라와 함께 일을 하였다. 또한 친척들은 연구참여자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여 늘 대가족 상태였다. 그래서 연구참여자는 자기만의 방이 따로 없이 여럿이 함께 사용했다. 많은 친척들을 거느리고 또한 같이 기거하며 그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연구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섬김의 내재적 선을 갖춘 것으로 사료된다. 여럿이 함께 방을 사용하며 질서와 배려라는 내적 재화 또한 각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어려서부터 옛날에는 인심이 다 그랬다고 치지만, 유난히 우리 집은 보따리 장사건 거지건 뭐건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밥 챙겨주고 상 차려서 이려고 맨날 그런 거 보면서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런 걸 이제 보고, 할아버지의 영향을 또 내가 제일 많이 받았어. 그래서 그런 이제 정신적인 교육을 이제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나는 하여튼 오지랖이 넓다 그럴까? 남 챙기는 거 누구 뭐 이렇게 도와주고, 괜히 내가 모른 척해도 되는데, 친구들이고 뭐고 막 이런 거를 원래 많이 해서(연구참여자 B).

어렸을 적 연구참여자 B의 집은 보따리 장사, 걸인 등이 오면 내치지 않고 밥상을 차려 대접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뜻이 있었고, 연구참여자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형제 중 가장 많이 물려받으며 성장했다. 그렇게 형성된 섬김은 스스로 오지랖이라 생각할 만큼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발현됐다.

연구참여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섬기는 일이 일상화된 가정에서 자라, 보고 배움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됐다. 이러한 내재적 선은 방문교육지도를 하면서 섬김과 이타성으로 발현되었다. 내재적 선은 주어진 환경, 즉 일차적 사회집단인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는 자식의 그림자 - 이타심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적 실천 행위를 통해 가족들의 응원을 받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는 부모세대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실천을 행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줬

다면, 이제는 연구참여자 자신들이 그 자녀 세대에게 대를 이어 본보기가 되어주는 모습이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은 가르친다고 되지 않잖아요. 부모의 그림자예요.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역아동센터에서 돈 없고 이런 아이들 가리키는 뭐를, 이미 어릴 때부터(자녀 스스로가) 봤고, 그다음에 또 이 다문화를 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정말 이주여성들한테, 정말 저는 올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한테 고맙다 그랬어요. 왜냐면 가족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해주니까, 나는 밖에서 다문화 이 여성들의, 이주여성들의 힘든 거를 발 벗고 댈 수 있었어요(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지도사 일을 하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를 했다. 방문교육지도사 업무를 하기에 시간 및 체력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까지 봉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어느 곳 하나 소홀함 없이 매 순간 대상자들에게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잘해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들은 연구참여자를 지지하고 응원해줬다. 이는 연구참여자의 사회 실천적 삶의 모습이 가족에게 큰 울림이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편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다 나를 엄청 인정해 주잖아. 고마워(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교직생활을 하며 느꼈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어려운 점을 보고, 퇴직 후 방문교육지도사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방문교육지도사로서 은퇴를 하기까지 최선을 다한 연구참여자 B는 남편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다. 이 또한 가족의 응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저변에는 연구참여자의 이타심으로 점철되는 내재적 선, 즉 탁월성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때 이혼을 많이 생각했는데, 아이들 위해서 참자, 그리고 중간에 경제적으로 막 힘드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니네들 다 업고, 내 등에 더 얹혀. 엄마가 어떻게든 니네들을 키워나갈게(연구참여자 A).

부부관계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겪은 연구참여자 A는 과외를 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생물학과 출신인 연구참여자는 가정 경제의 위기가 닥치자 집에서 수학 과외를 하며 난관을 헤쳐 나갔다. 또한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는 모성애를 보였다. 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지켜내기로 마음먹은 연구참여자는 작지만 강인한 엄마였다. 올바른 모성애는 사회적 실천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고, 방문교육지도 업무에 더없이 필요되는 요소이다.

나는 그렇게 엄마가, 내가 섬에 들어가서 진짜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못 나오고 이러면서 내가 교감 교장이 되면 뭐 하나, 애들 옆에서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길러야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연구참여자 B).

교직에 있었을 당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섬에 들어가야 했지만,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했다는 연구참여자 B에게서도 강한 모성애가 드러났다. 승진을 위해 자녀들과 떨어져 섬에 들어간 지인의 경우를 보고 모성애를 더욱 본능처럼 발휘했다.

연구참여자 A, B에게서는 자신을 희생시켜 가족을 선택한 모습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닌, '존경받고' '추앙받는' 즉, 사회적 실천으로 연계되는 희생이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사회적 실천을 배우고, 이는 결국 물의 흐름처럼 선순환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과가 되었다.

3. 틀을 깨고 세상에 나서다 - 용기와 사명감

연구참여자들은 자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기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 획일적인 삶의 모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조금 힘든 길을 가더라도 값진 삶의 길을 가고자 과감히 틀을 깬 용기이다.

나는 아예 그거(관리자 승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이러는 게 이렇게 좋은데, 관리자 되면 또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로 내가 주소를 옮겼으면 내가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1번 순서였어요. 왜냐하면 졸업과 동시에 시에 발령받은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또 내가 나이도 어리고,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걸 주소를 이렇게 해서 위장으로 옮기고 그러는 거 할 줄 몰랐어. 내 친구는 또 그렇게 옮겨가지고 들어가서 서울은 상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장 했어요(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교직 경력 내내 평교사로 남았다. 즉, 사회적 지위(교장, 전문직)를 이루는 것이 아닌 평교사지만 본인이 꿈꾸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겼던 거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D구 거기에서 모집을 하니까 갔어요. 그래서 뭐 한 서너 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계신데, 나한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교사로 퇴직을 하셨는데 이렇게 처우도 열악하고 힘들고 가정 가정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우리 센터의 직원들이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일을 다 받아들여서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난 다 할 수 있다고 했지. 나는 내가 그런 과정에서 이 일을 하는 게 참 보람이겠다 싶어서 일종의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왔기 때문에 ... (연구참여자 B).

방문교육지도사 면접 때, 면접관이 열악한 근무 환경 조건으로 인한 우려 섞인 질문을 하며 연구참여자 B의 마음을 확인했다. 연구참여자는 처우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며 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방문교육지도라는 일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보람된 일이며 그것은 곧 자신의 일이라는 깊은 사명감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센터 직원이 지시하는 일을 지시라고 생각 안 하고, 서로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데 필요한 협력으로 보았다.

남편이 내가 “강의를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네가 더 좀 해서 강사같이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놓고 강의를 하면 그들을 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게냐” 라고 우리 남편은 늘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주의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B의 남편은 방문교육지도가 아닌 대형 학원에서 수학 강의를 하기 원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때마다 연구참여자는 일대일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했고 확신을 가졌다. 가르치는 단 한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라도 사회에 나갔을 때 ‘뚝부러지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 시키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과외를 하면서 터득한 연구참여자의 방식이었다.

위에서 보듯이 연구참여자들의 내적 동기로 용기와 사명감이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천은 방문교육지도 업무를 하면서 더욱 빛을 발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4. 나는 역사의 증인 - 자아정체성 및 자존감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살아온 시기에서 특별한 역사적 모습을 마주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져가는 계기가 됐을뿐더러 자존감을 가지고 사회적 실천에 임하였다.

75년도에 대학교 입학할 쯤, 유신 반대해가지고, 데모 말도 못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K대는 완전히 폐교, 학교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막 최루탄 쓰고, 문 앞에서 다 막고 그랬어요. 이(당시) 정부에 반대한다 해가지고, K대가 데모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4.19도 봤고 5.16도 봤고. 그 많은 대통령을 거의 다 본 것 같아. 저희는 그 역사를 다 보고 자랐잖아요(연구참여자 A).

연구참여자 A가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에는 유신 반대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저항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였다. 특히 대학들을 중심으로 저항은 더욱 거셌고, 그 중심부에는 연구참여자의 모교인 K대학교가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민주운동의 태동이라 할 수 있는 4.19와 5.16을 겪으면서 국가의 존립과 사회 역사적 맥을 가늠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 위치와 해야 할 일 등을 생각하면서 정체성이 확립됐다.

우리 할아버지가 애국지사야. 그래서 지금 대전 현충원에 모셔져 있는데, G지구에 만세 운동 주동자, 우리 오촌 당숙이 서울 무슨 무슨 학교지? 거기 고등학교 옛날에 다니시면서 탑골 공원 거기 참가해서 만세 운동하고. 집에 내려와서 3월 23일 날 이제 우리 할아버지 이제 오촌은 조카고 우리 할아버지는 삼촌의 작은 아버지지. 또 몇몇 동지들 모아가지고 골방에서 태극기 제작하고 뭐 다 해서 연락 다 그 교회며 시장 장터 날짜 ‘오라니’ 장터라고 그러면 그날 날짜 맞춰서 그 지역 다 연락하고 만세 불러서, 이제 체포돼서 서대문 연구소에서 1년인가 1년 간 형 사르시고.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우리 할아버지 사진이 거기 다 붙어 있거든요(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일제시대 때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오촌 당숙이 고향으로 내려와 연구참여자의 할아버지와 친척들, 그리고 이웃을 동원하여

만세운동을 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주동 인물이던 오촌 당숙과 할아버지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고문 후유증으로 오촌 당숙을 일찍 돌아가셨으며 할아버지 역시 일찍 돌아가셨다. 훗날 국가로부터 만세운동을 인정받은 오촌 당숙과 할아버지는 훈장(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일을 통해 가문을 영광스러워했고, 나아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한 치의 어긋남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다. 그리하여 연구참여자 자신도 교직 은퇴 시 훈장(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자존감 있는 아이덴티티는 더욱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내적 탁월성의 덕목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민주항쟁의 목도와 조상의 독립운동은 연구참여자들의 자아를 더욱 탄탄히 만드는 계기가 됐으며 자존감 또한 상승했다. 자신의 현주소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건 곧 사회참여 가능성을 함의하기에 중요한 사회적 실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5.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삶 - 측은지심과 보은

본 절은 연구참여자들의 방문교육지도 업무를 대하는 자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방문교육지도를 봉사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그 아이들이 다 정말 문제가 많아 그리고 딱하고 불쌍하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격려해 주고 이런 일밖에는 할 수가 없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가정들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연구참여자 B).

내가 갈 때 매일 간식을 챙겨 가지고 가는 거야. 과자며 빵이며. 왜냐하면 가면 애들이 배고파 죽겠다 맨날. 그래서 맨날 내가 그런 걸 가져가서 먹이면서 또 공부하는 거야(연구참여자 B).

연구참여자 B는 교직에 40여 년간 몸담고 있어서인지 다문화 아동에 대한 마음이 남달랐다. 특히 가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위로하려고 했다. 방문교육지도 현장에 갈 때에는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간식을 준비했다. 진심어린 측은지심은 사회적 실천의 또 다른 덕목이다.

근데 사실은 이 다문화방문교육의 취지는요, 정말 저는 이거를 아까 말했지만 반 봉사에요. 그리고 나이드신 선생님들 저 같은, 아이들도 어느정도 다 키워고, 나머지의 에너지를 정말 이 사회를 위해 쓰는 거예요(연구참여자 A).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지도사의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임을 상정한 연구참여자 A는, 방문교육지도 업무를 봉사라고 말했다. 자녀들을 다 키워냈고 이제는 남은 에너지를 고스란히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됐다. 봉사를 통해 사회에 도움이 되고픈 순수한 마음으로 풀이된다.

그게 저한테 큰 힘이, 큰 자산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의 고난이 이제 저를 아... 이 사회가, 그니까 우리의 지역사회가 나한테 줬잖아요. 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했고, 제가 또 과외를 해서 지역사회

에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려줘야지..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I 이 지역, 서울도 아니고 I, 제가 여기서 얻은 게 많기 때문에 돌려주고 싶어요(연구참여자 A).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가정 경제가 어려웠을 때 과외를 하며 가게를 책임진 연구참여자 B는 그 고마움을 지역사회에 보답하고자 했다. 현재는 타 시에서 살고 있지만 과거 자신이 살았던, 즉 과외를 하며 자녀를 키웠던 I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힘들었던 시절 나를 도와주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고마운 도시라는 의미이다.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보은'은 사회적 실천에 있어 귀한 내적 선이다.

이 절의 마지막은 결혼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방문교육지도사는 한국 사회의 적응을 지나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자 지혜를 구했다.

근데 하나같이 아주 정말 성공한 애는, 저기 시청에 다문화 교육 거기에 이제 하는 그 소수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공장만 다니고,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 저는 운이 좋았는지 로스쿨 나온 페루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만난 멕시코 애는요 6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했다가 그 디자인도 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몇 개월 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웨딩 디자이너로 그리고 메이크업 자격증도 있고 그런 애들인데도(연구참여자 A).

매매혼이 성행하던 국제결혼 초창기와 달리 현재의 다수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유연애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따라서 고학력 여성들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자국에서 로스쿨을 다녔거나 고급 업종의 직무에 종사했던 결혼이주여성들조차 한국 사회에 진입하면서 언어소통의 부자유와 학력 미인정으로 단순 직군에 취업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스템은 해당 결혼이주여성들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도 손해가 된다. 이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연구참여자 는 안타까운 현실에 목소리를 높인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바라봄에서 오는 측은 지심의 발현이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은 연구참여자가 결혼이주여성을 대함에 있어 편견을 갖지 않게 한다.

6. 나는 방문교육지도사 - 역지사지

연구결과의 마지막인 해당 절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방문교육지도를 통해 드러나는 역할에 관해 기술한다. 우선 가장 많이 드러나는 역할은 친정엄마 역할이었다.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중국 학생들을 처음에는 세 명이었어요. 셋다 중국여성이에요. 한족도 있고 조선족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기 OO이라는 그 여자애가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결혼을 중국에

서 한 번 하고 한국에서 한 번 해요. 그런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내일이 결혼식인데 엄마가 못 오는 거예요. 와.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선생님, 한복..." 머리하고 빌려서 절 입혔어요(연구참여자 A).

이주여성이 얘기를 못 낳아요. 얘기를 못 낳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냐고 이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저기 O병원이나 OO대 병원을 가봅시다. 가서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 나, OO이(며느리) 셋이 또 이제 여기 OO대 병원을 갔다 왔어요(연구참여자 A).

그때는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했는지, 집에서 이유식 만들 재료를 채소 종류 한 다섯 가지, 고기 뭐 해서 매일 일주일에 두 번 가잖아요. 준비해 가서 같이 막 하면서 내가 이제 전기밥솥에 편하게 이유식 하는 방법이 또 있어. 그래서 이거 이제 가르쳐주고 해서 한 며칠 먹을 거 이렇게 해주면 이유식 통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데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라고 가르쳐주고(연구참여자 B).

내가 그거(냉이) 다 씻어서 데치고, 된장찌개 조금 해주고, 고추장 이렇게 해서 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아빠(이주여성의 남편)가 너무너무 맛있었다고 선생님 감사하다고(연구참여자 B).

방문교육지도사가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가 되는 방법은 다양했다. 비행기 연착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의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방문교육지도사는 한복을 입고 친정어머니 자리에 앉아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며느리가 임신을 못 한다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친정어머니 자격으로 기꺼이 함께 산부인과까지 동행해주는 모습도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초보엄마인 이주여성에게 아이의 이유식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집에서 아예 만들어 가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시장 노점에서 산 냉이를 요리할 줄 몰라 방문교육지도사에게 부탁한 결혼이주여성은, 남편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경우도 있었다. 연륜과 지혜로 점철된 방문교육지도사들은 주어진 업무 외에도 사적으로 부탁받은 업무도 흔쾌히 수락해줬다. 이주여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들 편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또한 사회적 실천으로 발현되는 중요한 덕목이다.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 대상자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자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애경사에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다음에 뭐 상조 누가 돌아가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그런 거 있으면, 얘기를 낳았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항상 있어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다음에 임신해. 그다음에 아기 낳아. 그럼 돌잔치를 해야 돼. 돌잔치 가야 돼. 그럼 다 우리 돈으로. "선생님 돌잔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가요.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거기서 또 다 자기(방문교육지도사 본인)야. 자기 돈이야(연구참여자 A).

애경사를 전해 들었을 때 일일이 다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이주여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기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다. 나눔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비롯되고 그렇게 발현되는 사회적 실천은 더욱 단단한 내재적 선이 된다.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강성애, 박정운(201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직무만족도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방문교육지도사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4), 391-404.
- 곽홍란(2010). 일반논문 :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활동 특성 및 현황 연구. *한민족어문학*, 57(0), 599-625.
- 권경숙, 봉진영(2013).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지도사의 실제적인 역할과어려움에 관한 탐구. *유아교육연구*, 33(3), 59-81.
- 김경화(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 -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의 매개변인 효과 -.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342-342.
- 김경화. (2010).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역할모호성의 매개효과. *가족자원경영과 정책(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165-181.
- 김미영(2006). 『현대공동체주의: 매킨타이어, 왈저, 바버』, 한국학술정보
- 김미영(2011). 실천과 탁월성 그리고 공과의 정의. *사회와 이론*, 18, 77-106.
- 김석기(2016). 운동선수의 인성교육을 위한 덕 윤리 적용 가능성.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24(3), 85-103.
- 노영혜, 김원중(2019).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적용 과정: 근거이론적 접근. *복지상담교육연구*, 8(2), 175-203.
- 박찬구(2014). (개념과 주제로 본) 우리들의 윤리학. *파주: 서광사.*
- 봉진영, 권경숙(2013) 부모교육지도사의 다문화가정 방문지도 경험의 의미 탐색. *교육연구* 56.69-105.
- 손제령, 김경화(2009).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 *지역사회 현안과 담론*, 8(0), 13-31.
- 유이치, 시오노야(2006). 『경제와 윤리-복지국가의 철학』, 박영일 옮김, 한길사.
- 유철인. (1990). 연구노트 : 생애사와 신세 타령 -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 *한국문화인류학*, 22(0), 301-308.
- 이오복(2014).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직업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연구.*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15(10),6092-6101.
- 이오복(2019). 다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인식유형 연구 -사회복지사,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6), 395-410.
- 이인숙. (1996). 덕의 윤리는 새로운 대안일 수 있는가? - 덕 윤리의 자립성에 대한 검토 -. *철학연구*, 19(0), 291-317.
- 이종현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이혼 위기에 관한 연구:“미발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2006).
- 이진경. (2014). 한국(韓國)의 문화(文化) : 다문화가정 방문 한국어교육지도사를 위한 보수교육 방안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75(0), 485-508.
- 임수진, 이현순(2015).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의 직무환경과 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0(1), 77-91.
- 조영아(2013).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의 활동 경험과 직무역량 개발. *다문화콘텐츠연구*,140,115-162.
- 주영옥, 김미원. (2013). 직무환경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연구: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8(4), 119-127.
- 채진영, 김혜라, 강복정, 황혜신, 권기남(2014).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다문화 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0,249-249.
- MacIntyre, A., *After Virtu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1
- MacIntyre, Alasdair.(2007) 덕의 상실. 이진우 옮김. 문예출판사
- Sennett, R, 2004, *Respect in World of Inequality* [유강은 옮김, 『불평등 사회의 인간존중』, 문예출판사.]
- Shaw, S. M.(1999). *Storytelling in religious education*. Brimingham: religious Education.
- Mandelbaum,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2022 인하대-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세션 2.

사회 | 오영섭 (인하대)

발표 4 _ 이소정(강원대)

꿈 분석을 통한 자기인식 변화 고찰

발표 5 _ 서현주(인하대)

미술치료경험을 통한 애착불안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발표 6 _ 김수아(강원대)

영화 '카드로 만든 집'을 통해 본 멜랑콜리와 애도

2022년 인하대-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꿈 분석을 통한 자기 인식 변화 고찰

강원대학교 교육인문협력학과
석사과정 이소정

들어가며

- 무의식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나타난 꿈은 정신분석에 있어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 상실된 기억이나 불편한 여러 표상 등 자아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경험들은 개인의 무의식 속에 저장되는데, 이 개인적 무의식이 꿈의 형성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
- 따라서 꿈에 나타나는 개인적 무의식들이 건네는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들어가며

- 본 연구자는 인문예술치료를 학습하는 예비 상담사로서, 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록해왔다.
- 꿈 속 상징을 성적 요소로만 바라본 프로이트 학파의 견해를 따르기엔, 본 연구자의 꿈에 나타나는 요소들은 성적 요소보다는 다른 것을 상징하고, 그 내용도 대부분 직접적이고 날 것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융 학파의 견해를 따랐다.
- 꿈꾸기 이전의 상황과 꿈 꾀 후의 정동반응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의 무의식을 분석한 뒤, 자기이해 및 자기 인식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연구 목적

과거와 현재의 꿈 분석을 통한 자기 인식 변화 사례 고찰

연구 대상

연구자 본인

들어가며

연구 방법

- 꿈을 꾸 후 기록 및 인상적인 장면 간단 묘사
- 꿈 내용을 정리하고 기억하는 꿈 장면 구체화 및 채색
- 융의 분석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꿈의 상징을 인식하여 꿈을 분석하여 자기탐색 및 자기인식 고찰

분석 자료

- 2019년 꿈 기록 - 강원대학교 인문예술치료학과 관심 증가 및 전공 이수
- 2021년 꿈 기록 - 교육인문협력학과 인문케어전공으로 대학원 입학 이후의 시기

연구 대상 정보

- 26세(만 25세, 여) 대학원 재학 중
- 가족 관계
 - 不: 무뚝뚝하고 엄하셨음.
 - 母: 상냥하시고 스킨십을 좋아함.
 - 兄: 타지에서 자취
- 성격
 - 예의를 중시하며 민폐 끼치기를 싫어함.
 - 예민하고 걱정과 불안감이 높으며,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회피 성향이 있음.
 - 자존감이 낮은 편이라 자기비판이 잦음.

연구 대상 정보

- 특이사항
 - 2017: 처음으로 꿈을 기록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고 선명히 남는 꿈만 기록
 - 2018: 주전공에 대해 흥미를 잃고 학교 생활에 지쳐 휴학하던 중 인문예술치료학과가 생긴 것을 알게 됨.
 - 2019
 - 복학 후 인문예술치료학과에 대해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복수전공 합격을 위해 성적을 올리기 시작
 - 1학기 교내 메이저러너 활동을 통해 인문예술치료의 기본적인 이론 학습을 통해 꿈과 무의식 및 상징에 대한 관심 증가
 - 2학기 인문예술치료학과의 전공을 학습하면서 과제를 통해 내면을 탐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억제하던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듯해 우울증 증세를 느껴 약 1년 동안 10회의 상담을 받음.
 - 상담사는 추가 상담을 권유했으나 경제적 문제와 뚜렷하게 호전됨을 느끼지 못하여 거절하고 상담 중단

연구 대상 정보

- 특이사항
 - 2020: 상담 중단 후 스스로 나아져보겠다고 다짐했으나, 내면을 깊이 탐구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대학교 졸업
 - 2021: 관심사였던 꿈과 상징 및 상담을 더 깊게 학습하고자 대학원 진학
 - 성폭력 트라우마
 - 학교폭력 경험

꿈 분석

- 공개할 수 있는 꿈을 추려내어 분석
 - 2019년도 꿈 기록 4개
 - 2021년도 꿈 기록 4개
- 내용이 짧더라도 인상적인 꿈은 무조건적으로 포함
- 꿈꾸기 전과 후의 인식상황과 강렬한 인상을 준 대상이나, 사물, 동물 등에 대한 인식과 정동반응을 중심으로 분석
- 상징과 분석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내용 보충

꿈 분석

2019년도 꿈 기록1 (2019.3.22.금)

오빠인지 오빠를 닮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남자랑 눈이 맞아서 진하게 스킨십을 하고 있었다. ... 그러다 화장실을 갔는데 초등학교 여자애가 화장실 칸 안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하려 했다. 그래서 내가 "왜 죽어, 죽지 마. 살아야 해."라고 하면서 붙들고 바닥에 내려놨다. 구해주고 나가려는데 내가 사는 곳의 정치인이라 높은 직급의 경찰이 우리를 붙잡으라면서 쫓았다. 그래서 여자애랑 나랑 도망을 가는데 결국에 붙잡혔다. 여자애는 잡히고 나는 애 구하려는 걸 저지당했다. 분노와 슬픔인 것 같은 감정이 함께 느껴지면서 경찰들과 경찰총장, 정치인을 썰어냈다.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복학 후 인문예술치료학과 복수전공 합격을 위해 성적 향상에 목표를 두었음. → 의무감과 부담감
- 교내 '메이저러너' 프로그램 팀원으로 활동하며 꿈 분석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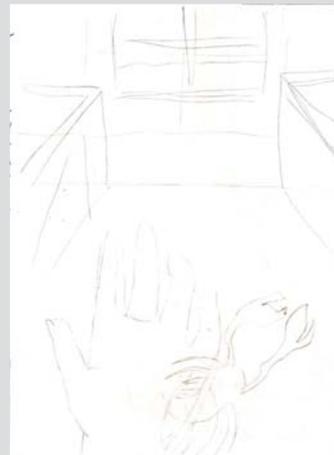
“여자아이”

- 꿈 속에서 든 생각으로는 무조건 살려야 하는, 죽어서는 안 되는 아이
- 억압하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때의 나는 더럽고 내가 이상한 것이라 생각
- 본 연구자가 '어릴 적의 나'에게 갖고 있는 일종의 죄책감
- 트라우마는 안고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인의 내가 죽으려던 여자 아이를 살려내려는 함.

꿈 분석

2019년도 꿈 기록2 (2019.4.19.금)

나이 좀 먹은 아저씨와 다른 어린 애들도 있었는데 어느 남자도 있었다. ... 직접 만든 배 위 뱀머리 끝자락에서 늙은 아저씨와 나는 밥상을 펴 놓고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 흐느적흐느적 물결 따라 이동하다 어느 숙소 같은 곳에 잠시 애들이랑 나랑 내려다. ... 그런데 갑자기 내 오른 손등에 돈벌레 같은 애가 속으로 파고들어갔다. 너무 아팠고 안에서 벌레가 꿈틀거렸다. 손목을 부여잡고 늙은 아저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손등 안에 있던 벌레가 그새 성장하고 내 손바닥 옆구리가 터지며 전갈 같은 생김새의 벌레가 나오고 도망을 갔다. ... 내가 있던 방 안에는 고기를 냉동보관 중인 큰 냉장고들이 있었다. 근데 고기들이 갑자기 까맣게 썩기 시작했다. 아까 내 손에서 나온 전갈 같은 벌레가 성장을 한 것인지 엄청 큰 괴물 지네 같은 게 되어서 우릴 쫓아 오려는지 복도에서 괴물의 움직이는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후배에게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다급하게 외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심적 부담감 증가 및 옛 기억이 떠오르는 빈도 잦아짐.
- 스트레스로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등 현실 회피

“괴물”

- 독단적인 성향과 개인주의적 면모가 '괴물'이라는 그림자로 나타난 것
- 예의범절을 지켜야 하고 타인에게 배려해야 하며 밝게 보여야 한다는 페르소나에 집착했던 면으로 인해 그림자는 괴물이 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 것

“그래서 난 후배에게 아저씨를 불러오라고 다급하게 외치다 꿈에서 깼다.”

- 꿈 속에서 혼자 살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려 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같이 살아남으려 했음.
- 무언가 역할을 자꾸 부여 받고 그것을 해내고자 함.
- 이는 현실에서도 무언가 계속 해내야 하고 다방면에서 부여 받은 역할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

꿈 분석

2019년도 꿈 기록3 (2019.8.31.토)

꿈에서 조폭 같은 사람에게 쫓기고 있었다. 야구장 옆에서 가족들 일부는 도망 보내고 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남아 있었다. 쫓아온 상대가 도착하고 싸우기 시작했다. 야구 배트를 들어 때리곤 했지만 상대는 끄떡없었다. 죽기 직전까지 싸워서 결국은 이기고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 산을 탔다. 죽은 한 명의 이유를 찾기 위해 앞장 서는 아이를 따라 산을 탔다. 앞장 선 아이는 나를 싫어하는 듯 했다. 산은 매우 험난했다. 무슨 버섯을 설명해줬다. 머느리 버섯(검정색에 여러 개가 절벽에 피었음)은 기분 나쁘게 생겼었다. 가파른 산길을 매달리듯이 오르고 계단 같은 곳이 나왔다. 거기서 어떤 남자 아이가 깨달았다. 죽은 그 아이는 구??의 신발에 의해 자살하게 된 것이라고. 근데 그 구??은 옆에 있던 다른 남자 아이의 아빠 이름이었다. 그 죽은 아이는 성폭행을 당해서 죽은 것이었다. 절망에 빠진 듯한 표정의 남자 아이. 꿈에서 깼다.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심적 부담감 증가 및 옛 기억이 떠오르는 빈도 잦아짐.
- 스트레스로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는 등 현실 회피

“자살과 성폭행”

- 직접적인 단어 등장
- 자살한 아이: 본인 / 남자 아이: 오빠
- 가끔씩 '내가 죽고 모두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 상태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

꿈 분석

2019년도 꿈 기록4 (2019.12.31.화)

TV인지 컴퓨터인지 화면 너머 CCTV의 각도로 나체인 여자와 남자가 나왔다. 침대 위에 남자는 누워 있고 여자는 그 위로 올라타 있어서 야한 영상이나 싶어 호기심에 보고 있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야한 동영상 같은 것이 아니었다. **여자가 칼로 남자의 배를 썰고 상처 사이로 나온 내장을 꺼내서 자신의 몸에 가져가 비비는 듯한 행동을 했다.** 그 장면을 보고 질겁했는데, 여자가 허공을 바라보는 것인지 CCTV를 바라본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나와 눈이 마주치는 것 같았다.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는 감정이 들면서 잠에서 깬다.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2학기 동안 본격적으로 인문예술치료학과 전공 수강 → 한 학기 동안 과제를 통해 내면과 트라우마를 성찰
- 심리 상담은 10회 중 7회까지 받았으나 호전됨을 느끼지 못함.

“여자와 남자”

→ 여자: 본인 / 남자: 오빠

→ 남성을 칼로 찢어 죽이는 행위는, 과거에 대한 것들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꿈으로 드러난 것

→ 꿈 속에서 무언가 죽는 것은 나쁜 의미만은 아니며,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이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과거에 대한 것들을 털어내고 오빠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 또는 새로운 생각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꿈에 나타난 것

→ 꿈1에서 현재의 나는 어릴 적의 나를 도와준 반면, 시간이 흐른 뒤 꿈4에서는 현재의 나는 오빠를 처단한다는 점에서 심적/정신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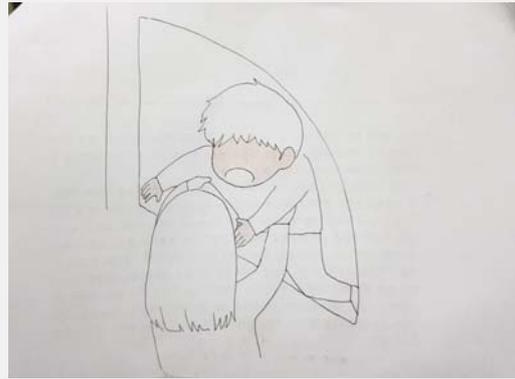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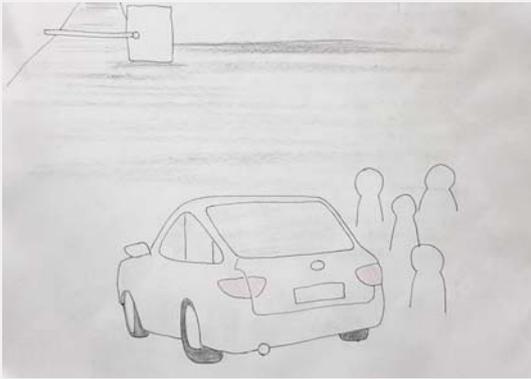
꿈 분석

2021년도 꿈 기록1 (2021.9.15.수)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느낌이었다. ... 우리는 어느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차에 없었다. 넓은 주차장에 아동부터 청소년들이 있었다. 나는 관심을 끌어 친해지고 싶었다, 특히 큰 남자애와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놀던 카드를 갖고서 차에 탔다. 아이들은 차를 둘러싸며 카드를 가져가려고 했고 나는 웃었다. 그런데 **남자 아이(동남아 혼혈처럼 약간 까무잡잡, 쌍꺼풀 큰 눈)**의 표정이 이상했다. 내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여기가 싫다며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재빨리 차에 태우고 주차장을 벗어나려 했다. 요즘 정산소에 막혀서 카드 결제를 빠르게 하고 나왔으나 큰 남자애가 쫓아와 총을 쏘다. 3-4번을 맞아 차 유리가 금 가고 깨졌다. 아무도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아빠가 맞으셨나보다. 아빠는 운전하며 괴로워하셨다. 나는 당황했고 운전대 잘 잡고 정신 놓지 말라고 했다. 어느 시설에 도착하니 어르신과 아이가 있었다. 넓은 방바닥에 다들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 있었다. 아빠는 치료를 맡긴 것 같았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 무리의 보스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막아서기 위해 빗자루를 거꾸로 들어 손잡이 부분을 휘두르고 다녔다.** 대장은 나갔고 카운터 직원 여자는 CGV에서 검문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줘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고 이쪽 문은 최대한 쓰지 말고 나가자 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한 아이와 할머니가 마침 그 문으로 들어오기에 내가 빗자루 손잡이로 아이에게만 아프지 않게 머리를 톡 치며 혼냈다.

꿈 분석

2021년도 꿈1 이미지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석사 2학기, 논문자격시험을 앞두고 있었고, 여러 세미나가 일주일 뒤 시작될 예정이었음.
- 10월에 있을 국제학술대회 발표와 1차 백신 예방접종으로 불안 및 걱정
- 대인관계 및 일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음.

“여행”

“융은 개성화 과정이 미지의 나라를 찾으러 떠나는 여행으로 자주 상징된다고 하였다.”

(카를 G. 융 외 지음, 『인간과 상징』, 2009)

- 내면을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
- 부모님과 여행을 가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

꿈 분석

“(동남아 혼혈)남자 아이”

- 본인의 어릴 적 모습과 유사한 느낌(까무잡잡한 피부, 짙은 쌍꺼풀)
- 활발하고 개구쟁이였던 초등학교 시절
- 성인이 된 후 주위 시선을 의식하여, 억제하면서 노는 편
- 본 연구자가 억제하고 있던 예전 어릴 적의 남성성의 모습, 즉 아니무스가 다가온 것으로 분석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빗자루로 막는 모습”

- 현실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여러 일들을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나감.
- 본 연구자가 방어능력이 생긴 것, 돌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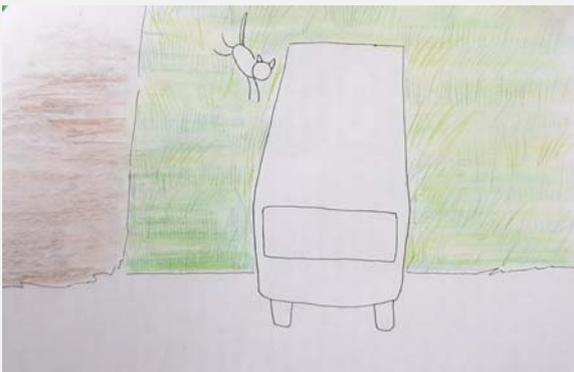
2021년도 꿈 기록2 (2021.10.3.일)

블랙워의 카드를 받았다. 오히려 내가 그 카드를 받아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다. **집 안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총을 소지하고 있다. 그 총을 피해 내가 그 사람을 처리했다.** 처리한 뒤 떨어진 총을 주워 기관총처럼 집 근처에 설치했다. 집 안엔 나와 아빠만 있는 것 같았다. **2개만 더 설치하면 집과 사람을 보호하기 더 용이할 것이다.**

나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는데 대관령을 지나 내려왔다. 옆엔 넓게 캠핑장 같은 곳이 있었고 고양이들이 있었다. 산기슭에 고양이들이 파인 홈에 나란히 들어가 있고 이름표가 있었다. 캠핑장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같았는데, 파인 홈에 있는 **고양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진짜 같았다.** 그래서 '박제한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에이, 그러면 저기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겠지'하고 지나갔다. **밥을 먹기로 했다.**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았다. 나는 노란 푸딩이나 계란찜으로 보이는 음식을 한 스푼 찜고, 하얀 푸딩이나 하얀 치즈로 보이는 음식도 한 스푼 찜다. 아몬드브리즈 초코프로틴맛도 하나 찜겼고(아몬드브리즈초코프로틴맛, 바나나우유 초코맛, 네스퀵 초코맛, 서울우유 초코맛 등 여러 종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멘보샤를 받았다. ... 나는 마음속으로 '엥?' 했지만 음식을 다 받고 일행이 앉은 자리 맞은편으로 갔다. 나는 의자에 앉으면서 일행과 다른 쪽을 쳐다보다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꿈에서 깬다.

꿈 분석

2021년도 꿈2 이미지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수강하는 과목들의 발표 및 과제와 국제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심리적 부담감 증가
- 세미나 진행, 연구 동아리의 공동연구, 또 다른 공동연구의 논문 투고
- 9월 보다 더 바쁜 10월 일정에 예민해져 당시 만나던 애인과 잦은 다툼
-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작성과 컨디션 난조가 겹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을 자주 느낌.

“총”

- 총을 피해 도망친 꿈1과 이어지는 듯함.
- 꿈2는 집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적이 소지하던 총을 본인이 직접 싸우고 빼앗는 점에서 꿈1과 다름.
- 더욱 적극적인 행동은 여러 일정들을 소화하는 능력이 더 강해진 것이라고 파악

꿈 분석

“버스”

→ 우회전하여 왼쪽으로 향하는 버스

“텅 빈 종이는 즉각적으로 공간에 대한 원형적 체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지각에 의해 결정되는데, 왼쪽은 불길한 것, 어두운 면과 과거와 관련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밝은 면과 미래와 관련되어 있다.”

(테오도르 압트, 『응 심리학적 그림해석』, 2008)

→ 좌측을 향하는 버스는 본 연구자가 과거를 자주 떠올리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함.

꿈 분석

“고양이”

→ 꿈 꾀 후 강렬하게 다가온 고양이 이미지

→ 박제된 것 같은 얼룩무늬의 고양이는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예뻐움.

“고양이의 긍정적인 상징으로는 인내, 자유, 평화, 안락함을 뜻하기도 한다.”

(진 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1994)

→ 버스를 타고 왼쪽으로 이동하며 고양이를 바라보는 것은 과거를 떠올리며 우울해하면서도 힘든 현실 상황을 인내하면서 자유 또는 안락함을 희망하는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

꿈 분석

“밥을 먹기로 했다. 급식소에서 배식을 받았다. 나는 노란 푸딩이나 … 멘보샤였다.”

→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음식들

→ 꿈 초반 적과 총이 나오는 장면, 후반에 구체적이고 여러 종류의 음식들이 나오는 과정은 현실 상황이 전쟁 같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본인에게 도움이 되고 영양을 주는 과정인 것으로 파악

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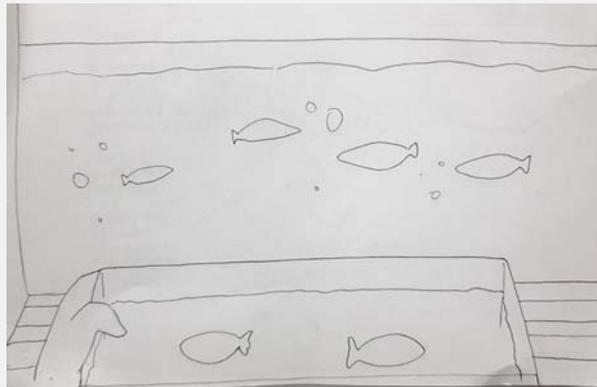
2021년도 꿈 기록3 (2021.11.17.수)

내 복층 창문 밖으로 창문 너비만큼의 네모난 수조가 있다. 창문 열면 창문 위쪽에 수조가 바로 배치되어 있고 물고기들이 있다. 내가 들고 있는 다른 작은 통 안에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데 몇 마리가 배를 위로 하고 헤엄쳐서 죽어가는 것 같아 수조에 넣었다. 밖은 비가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싸움 또는 경쟁 같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횡단보도를 건넌 듯하다. 붕고차에 같은 편의 남자와 탔다. 차 안에 남자 둘이 있었다. 무언가 서열상 내가 살려면 개네를 부려야 할 것 같았다. 대화를 하다가 내가 남자 어깨에 얼굴을 기대곤 했다. 그러다 어떤 말에 남자가 날 쳤고 **나도 화나서 때렸다**. 그러자 나를 또 때렸고 **나 역시 같이 때렸다**. 두 대 정도 서로 때린 후 난 차에서 내렸다. 같은 편의 남자도 내렸는데 나보고 '아까 그 남자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함부로 때리고 스킨십하는거 아니다'라고 했다. **난 억울하고 화나서 '스킨십은 내 잘못이라 해도 때린 건 내 탓이 아니다. 그 남자가 이리저리 하다 먼저 때려서 나도 같이 때린 건데 그게 왜 내 탓, 내 잘못이 되는가. 나는 가만히 맞고 있어야 하나'**라고 따졌다.

꿈 분석

2021년도 꿈3 이미지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과제 발표, 공동연구, 자격증 등 버거운 일정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지치면서 술을 마시고 **무기력**에 빠짐.
-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관**했으며, 특정 타인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모두 밉게 보았음.
- 본인은 이기적인 면모가 있으나 드러내지 않고 배려하려고 하지만, 이 시기 부정적인 생각이 심해지면서 짜증과 분노의 감정이 잦아짐 →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
- 무기력으로 좌식/와식 생활로 인해 몸이 무거워짐을 느껴 건강해지고자 **운동을 시작한 시기**

꿈 분석

“죽어가는 것 같은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 큰 수조에 넣었다.”

“물고기는 생명의 재생과 유지, 생명의 원천과 생명을 담고 있는 바다나 강의 힘, 원소로서의 물을 나타낸다. 물은 탄생하는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물에 담그는 것은 원초의 순수상태로의 회귀, 이전의 낡은 생명의 종언, 새로운 생명으로의 탄생을 상징하는 것 말고도 혼을 현현 세계에 담그는 것을 나타낸다.”

(진 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1994)

- 이 꿈속 행위는 이전의 낡은 생명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 및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파악
- 즉 본 연구자가 무기력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다짐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처럼 힘든 현실에서 나아지려는 마음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

꿈 분석

“남자와 서로 때리고 싸웠다.”

- 꿈속 본인의 행동은 현실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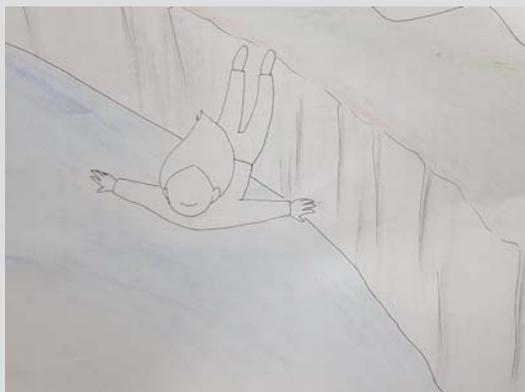
“융은 꿈 소재를 산출함으로써 심적 평형을 회복시키는 꿈의 일반적인 기능을 심리 구조에서 꿈의 보완적(혹은 보상적) 역할이라고 하였다.” (카를 G. 융, 『인간과 상징』, 2009)

-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억압하려 하면서 자질 의심과 동시에 자괴감에 빠졌는데, 이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들이었음.
- 꿈에서 본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현실에서 본인의 참는 성격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균형, 즉 심적 평형을 잡아주기 위해 나온 것으로 파악
- 동시에 실제로 9월 중 상대의 주장에 반격한 적이 있어 내적 성장이 차츰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꿈 분석

2021년도 꿈 기록4 (2021.11.24.수)

일부 장면만 기억난다. 하늘을 날아 다녔다. 꽤 높은 산을 넘어(너머의 산은 절벽 부분, 분지처럼 산 아래는 호수처럼 물/강이 있다) 갔다. 호수처럼 잔잔한 강을 넘어 무엇인가를 위해서, 어딘가를 가기 위한 관문으로 문제지를 풀었다. 그런데 문제들이 너무 어렵고 푸는 법이 기억 안 나서 많은 문제를 풀지 못했고, 나는 답답하고 화가 났다.



꿈 분석

• 꿈 꾸기 이전의 상황

- 꿈을 꾸었을 당시를 기술한 바와 같이 바쁜 일정, 특히 연구 동아리로 부담이 컸던 시기
- 10월처럼 바쁘게 살던 중 당시 만나던 애인과 같은 문제로 싸우고 결국 이별
-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 것과 개인 시간/휴식 시간이 확보되었다는 생각이 먼저 든 것은 다소 불편했으나 마음은 평온하였음

“하늘을 날면서 산을 넘고 강을 지나온 것”

- 아주 짧은 기록이지만 본 연구자의 심리가 정확히 드러난 꿈
- 거대한 무언가를 뛰어넘은 것인데, 시기를 고려하면 부담을 갖고 있던 연구 동아리의 연구 활동이 마무리 되어 가던 때
“강은 인생 과정의 상징이다.” (진 쿠퍼, 『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 상징 사전』, 1994)
-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인생 과정 중의 하나를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꿈 분석

“다음 관문으로 가기 위한 문제지를 풀지 못함.”

- 문제지는 또 다른 관문으로, 현실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닥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 시기 한 학기의 절반이 지났음에도 지친 마음으로 인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음
- 마음이 평온했던 것도 잠시 남은 일정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꿈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음.

꿈 분석을 통해 나타난 자기 인식 변화

	2019	2021
꿈 속 몽자의 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라우마적 요소들에 대해 도망, 자살 등 대체적으로 회피• 본 연구자의 어릴 적 모습을 보호하려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 등 어디론가 떠남.• 갈등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고 막아내고 누군가와 싸우면서 사람들을 보호함.
자기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면과 트라우마를 탐구함에 따라 우울감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본인의 존재를 부정• 나아지고 싶은 의지를 지속적으로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라우마에 지배되지 않고, 현실상황에 돌파력을 갖고 해결해 나감.•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 분석을 통해 자기에 대해 할 수 있었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회피하던 심리와 무의식을 인정하게 됨.• 트라우마에 의한 우울감은 약해졌으며, 자기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

결론 및 제언

- 2019년과 2021년도에 기록한 꿈들을 분석하며 무의식을 의식화 함.
- 무의식과 내면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심적 변화와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었음.
- 자기 꿈 분석은 본인의 꿈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이 용이할 수 있으나, 그만큼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
- 2019년과 2021년의 꿈들을 4개씩 추려 분석하였는데, 이는 시간 흐름에 맞게 무의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엔 8개의 꿈은 자료로서 부족한 양이며 2020년도의 공백이 있음.
- 다양한 인문학 및 예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꿈을 분석한다면 쉽고 자세하게 자기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분석가와 함께 한다면 더욱 깊은 내면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I. 서론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보편화되고 가족형태도 핵가족화 되면서 주 양육자와 떨어져 자라는 아동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들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정서적 부분이나 행동적인 문제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상담·치료 현장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내담자의 문제 중에서 애착 장애의 특성을 수반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양육환경을 살펴보면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의 잦은 분리경험, 조부모 양육, 친척 양육 등 잦은 양육자의 변경(남경인, 이미숙, 2006) 혹은 현재 양육자와 분리 상태나 우울한 모의 공감 부족과 냉담한 반응 등의 환경적 요인 및 아동의 기질과 성격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환경인 가정에서 초기 양육자인 부모와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며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질은 아동의 정서 발달과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초기 양육자인 부모와의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질을 적절히 경험하지 못한 아동은 다양한 정서 행동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곽진영 외, 2015).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부적응인 불안, 우울, 위축, 공포 및 외로움을 숨기기 위한 피상적이고 거짓된 감정표현과 같은 내면화된 정서문제(윤민주, 2018; 이경하, 2007; 이미애, 2004). 부정적 정서로 인한 주의력 저하(이경하, 2007; 최나리, 2015), 또래 관계에 대한 불신과 공격성, 언어발달의 문제 및 사회성 부족(박민선, 전종국, 2016; 정계숙, 이은하, 2010; 최나리, 2015) 등은 아동의 개인 정서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식을 습득하고 소속감을 느끼는 학령기 시기에, 불안 애착 아동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표출할 수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불안애착아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불안 애착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주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불안 및 부정정서 감소 및 애착증진 등 정서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미술치료 사례를 통해 Winnicott의 이론을 활용하여 지지활동과 창작활동으로 구성된 촉진적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동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애착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곽진영 외, 2015). 남경인 외(2007)은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아동의 애착양식 표출 방식을 통한 정서와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밖에도 미술치료 프로그램에서 치료자와 아동이 가지는 애착의 재경험을 통한 신뢰형성(박민선 외, 2016), 모-아의 사고나 느낌 욕구와 의도 등과 같은 정신적 상태를 근거로 영아의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인 어머니의 반영기능이 애착 안정성을 어떻게 이루는 지에 관한

연구(박혜근, 2015) 혹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불안정 애착아동의 또래유능성과 또래 관계 등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으로 확대되었다(노영숙, 2020). 특히 불안정 애착 아동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여 공격성과 문제행동이 감소됨에 따라 자신의 내적인 표상을 교정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되었고 이는 자신에 대해 가지게 되는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며 자아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윤인숙, 2020; 이미야, 2004; 최나리,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짧은 회기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나 양적연구로 진행되어 효과성 검증의 정량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불안정애착 아동들이 불안을 감소시키고 애착을 증진함에 따라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아효능감을 느끼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적연구는 미비하다. 이제 본 연구는 불안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경험에서 나타난 아동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불안 애착 아동은 미술치료에서의 애착 형성 경험을 통해 어떻게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애착과 정체성

애착이란 인간의 고유하고도 강력한 내적 동기로, 영아와 주양육자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인 유대를 말한다. 최초의 애착은 생후 6개월경부터 관찰할 수 있으며 4세까지 점진적인 발전을 보이는데 이후 아동발달이나 타인과 관계 맺음, 아동의 자아개념 생성과 인생경험 발달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Bowlby, 1973). 이처럼 애착은 공감적이고도 상호적인 관계라 할 수 있으며 영아와 양육자간 동시적 상호작용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정서적 애착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Daniel Stern, 1977). 영아는 애착 대상인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적 작동 모델을 발달시키는데, 내적 발달 모델의 특징은 자신이 자신의 애착 인물의 눈에 얼마나 수용 가능한지 혹은 수용불가능한지에 대한 자기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일반화된 내적인 표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내적인 자기표상은 영아의 발달과정에서 정서적 경험과 기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Bowlby, 1973; Bretherton, 1980; Main, Kaplan, & Cassidy, 1985). 영아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관계인 엄마와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내적 작동 모델은 이후 정서표현 및 다른 타인과의 관계맺음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Beebe & Lachmann, 2002). 이렇듯 아동이 전 생애를 걸쳐서 형성하는 애착은 성장과정 동안 맺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친밀하고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근거가 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도 영향을 준다(Ansberry, 1999).

애착의 다른 개념은 시·공간을 넘어 지속적으로 안정된 속성으로, 애착행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Ansberry, 1979). 이는 영아가 주위환경에 적응하고 탐색하는 행동과 어머니로부터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는 애착 행동 간의 상호

작용을 애착-탐색의 균형 또는 안전기지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엄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불안정 애착 유형의 아동에 비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월등하게 높고 주양육자와의 애착의 질은 인지, 사회적, 정서적 발달 및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윤정희, 2002; Jay & Pasco, 2002). 이로써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유아기나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애착을 바탕으로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장점을 발휘해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이루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동이 생애 초기 일차적인 애착 대상인 부모나 의미 있는 타인과 맺은 애착 관계의 질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한다(Ansberry, 1999).

반면, 아동에게 부정적이거나 거부적인 어머니의, 방향성 없고 혼란스러운 양육방식은 아동의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 이러한 아동은 충동적인 내면정서를 드러내고 또래관계에서도 수동성이나 의존심을 보이거나 내재된 분노를 미숙하게 다루게 되어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Wemar, 1989). 이들은 이러한 이유로 심리 정서적인 발달을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권윤정, 2016).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정서교류나 또래관계에서 지속적인 좌절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지 못하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세상을 향해 호기심을 가지고 탐험하며 나아갈 안전기지(Bowlby, 1988)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불안 애착 아동이 안정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는 관계의 재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억압되어있는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기회를 가져 미해결된 욕구가 잘 해결된다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아동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자기개념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학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또래간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맺음 과정에서 유대감과 신뢰감을 경험한다. 아동은 또래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 갈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과 타인 및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탐구 능력과 책임감도 배우게 된다(유안진 외, 2001).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형성은 단순히 정서적인 부분 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아동의 정체성이란 단지 자신에 대한 자체의 개념이나 자각을 의미할 뿐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심리적인 자신감과 안정감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최지원, 2011).

2. 애착불안 아동의 정체성과 미술치료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한 인간의 발달 과정이다. 이는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에릭슨(Erikson)은 자아 정체성이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추구하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성취하며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으

로 일관된 자기다움의 감각을 유지하는 동시에 타인과 다른 자신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내적인 욕구와 사회 환경의 자극 및 가치를 나름의 방식으로 재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동질성과 연속성의 자신감을 가지며 사회나 또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및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박아청, 2010). 에릭슨이 구분한 인간 발달의 8단계 중 4단계인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기를 잠복기(학령기)라 하며, 자아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단계로 보았다. 이 시기에 자아정체성이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른 발달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아동기가 자아정체성이 성장 및 발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로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과도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에릭슨이 주장하는 자아정체성은 유아기 이전에 형성하고 발달하거나 청소년기에야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여 확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며 연속적으로 지속해서 형성되고 발달하는 것이라 보았다(김설리, 조남규, 2019). 그러므로 개인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며(김영순, 황해영, 권도영, 김정은, 임지혜, 2020) 관계의 질에 따라 개인의 정체성은 다양하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불안정한 애착으로 인해 어린 시절에 정서적인 외상을 경험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명쾌한 이유나 대답을 들을 수 없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며 점차 질문을 회피하게 된다. 그러한 경험을 반복하게 되면 불안 애착 아동은 자아정체성을 통합시키지 못하며 자기 비하, 자기 패배감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에서는 그 의미를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경험한 외상 경험에 대해 건강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통한다면 외상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외상경험자들은 외상을 재경험 하고 기억을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을 어려워한다(김선현, 2018). 그러므로 애착 대상과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여 상실과 박탈을 경험한 아동을 빠르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 또한 안정적인 관계경험이다(Whelan & Marvin, 2011).

불안 애착 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선행연구에서 아동은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비언어적인 매체를 사용하여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가지며 정서를 함양시키고 문제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다(이미애, 2004). 불안 애착 아동은 과거에 감정을 표현하고 수용받기 보다는 정서의 지지환경이 박탈되는 경험이 많아서 감정표현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이때 미술치료에서의 창작활동은 거짓으로 자신을 표현하던 상황에서 벗어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경험하며 안전하게 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보며 만족함과 자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박민선, 전종국, 2016). 또한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내면의 부정정서를 안전하게 표출하며 미술작품을 통한 자기표현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며 내적 자아의 표상을 만들어 간다. 이 과정에서 자아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나간다. 이밖에 미술치료과정에서 치료사와 안정

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관계의 재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억압되어있는 감정을 안전하게 표출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율할 기회를 갖게 되어 미해결된 욕구가 잘 해결된다면 불안 애착 아동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체성 형성과 발달을 이어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미술 치료과정에서 미술치료자는 Winnicott의 ‘안아주기’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치료자는 불안 애착 아동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여 아동이 겪고 있는 불안, 우울, 공포, 위축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안전하게 꺼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부모와의 초기관계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미애, 2004). 이 과정을 통해 생애 초기 양육자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애착의 기회를 얻지 못한 아동은 안정 애착으로 바뀔 기회를 얻는다(Rogers, 1959). 결과적으로 아동은 치료사와의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다양한 예술매체를 활용한 의식·무의식적인 작업을 통하여 자기인식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되고 억압된 부정정서를 표출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며 이때 아동은 자신의 욕구와 정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표현 및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나 또래 공동체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가지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발달과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박아청, 2010).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불안정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경험을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의 정체성 형성 경험을 살펴보는 사례연구이다. 사례연구는 현대 질적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는 ‘경계 지어진 체계’ 또는 연구의 ‘대상’으로, 사례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갖는,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Stake, 1995). 경계(boundary)란 외부 환경으로부터 대상체계(subject system)를 구분해 주는 일종의 테두리로서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경계로 구분된다. 체계(system)란 경계로 구분된 테두리 내에서 서로 관련을 맺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집합체이다. 즉, 경계는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교류의 특징을 구분해 주고 체계의 독특성을 유지시켜 주며, 체계는 경계 지어진 일련의 단일 실체들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을 맺고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질적 사례연구는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하는지를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07).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연구사례인 불안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 경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경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미술치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치료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경계와 미술치료실의 공간적 경계로 한정된다. 둘째,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은 미술작품과 치료일지이지만, 그 외에 사례관리일지, 심리 검사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 셋째, 분석을 통해 불안 애착 아동의 미술치료 과정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

에 질적 사례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치료사례전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아동의 미술 치료과정에서의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B 소재 초등학교 2학년(만 7세)에 재학 중인 여자 아동으로 외동 자녀이다. 7세 때부터 또래 관계 갈등을 경험하여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요”. “슬프다”라고 말하며 우는 일이 자주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온종일 유튜브만 보며 친구들과 함께 노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도 이내 혼자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쉽게 토라지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또래와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좋아하는 활동은 2~3시간도 몰입하지만, 이외의 활동에서는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평소 손톱을 뜯는 습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에 또래 관계의 어려움 및 불안정한 정서 상태와 주의 집중력 관련 문제로 미술치료를 의뢰하였다. 아동은 5살 때까지 부모와 떨어져 지방에서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었다. 현재는 부모와 거주하고 있으나 외조부모, 외삼촌 등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봐주고 있어 양육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에너지가 낮아 아동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하고 아동과 함께 있어도 상호작용이 적다. 아동의 모는 아동 미술치료 과정 중 우울증을 진단받아 약을 복용 중이다.

2. 미술치료과정

미술치료 과정은 초기, 중기, 후기와 종결회기로 총 64회기가 진행되었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아동은 치료활동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감정을 언어적·비언어적으로 표출하고 재인식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나갔다. 아동이 치료사와의 관계속에서 애착형성의 재경험과 이에 따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아래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미술치료 회기별 성취목표

단계	회기	성취 목표
초기	1~10회기	정서적 안정감 찾기, 치료사와 신뢰관계 형성하기
중기	11~48 회기	내면의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 안전하게 표출하기
후기	49~60 회기	자기인식을 통한 정체성 탐색, 타인인식을 통한 상호작용
종결	61~64 회기	이별의 의미를 탐색하고 주제적인 종결하기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S 시에 소재한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발달센터 미술치료실에서 진행되었다. 주 1회, 회기 당 40분간,

총 64회기를 1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 예술심리상담사 자격을 가진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미술치료는 아동이 원하는 작업이나 치료사가 제시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개인 미술치료로 진행하였다. 매회기 아동과의 미술치료 후 10분간 부모 상담을 진행하였다. 아동과 모의 상담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하여 미술 치료과정에서 아동이 제작한 작품사진과 치료과정을 기록한 경과일지를 사용하였으며, 아동과 치료사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기록한 전사본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앞서 임상심리사에 의해 아동에게 실시된 K-wisc-IV, BGT,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에 대한 사전검사 분석결과지 및 의사의 진단평가지를 참고하였다. SCT검사, K-wisc-IV는 사전검사에서 각각 아동의 생각과 행동, 특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인관계 및 가정환경, 사회능력 및 문제행동 지적능력에 불안정애착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변화 사례연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미술치료 실시 후에 사후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매회 관찰된 아동의 행동 특성을 기록한 치료일지, 아동의 작품사진, 아동의 담화 등을 종합하여 64회 동안의 미술치료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 그리고 대인관계 및 가정환경, 사회능력 및 문제행동 지적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봄으로써 아동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동의 미술치료과정에서의 담화를 중심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담화들은 '왜'이러한 담화를 형성하였는지를 관계성을 중심으로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후 최종 정리된 연구결과는 아동의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한 자기표상 및 타인에 대한 표상과 미술치료과정에서의 자아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4.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회기부터 64회기까지의 프로그램 내용과 치료 경과 내용을 정신분석가 1인과 전문 미술상담가 1인에게 감독을 받았으며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자는 2021, 2022년 인하대학교 질적 연구방법론 캠프에 참여하였으며 2021년 전남대학교 질적 연구 분석기법 워크숍을 이수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미술치료를 통해 아동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로 아동의 사적 정보 내용과 아동이 산출한 미술작품 및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연구 시작 전에 아동과 부모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고, 또한 아동과 모에게 연구 결과의 사용범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아동과 가족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실명이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치료경과보고서의 내용에서 아동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IV. 연구 결과

아동의 내적 작동 모델에 따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인식한 자아정체 성과 미술치료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내적표상으로 이루어진 정체성의 변화

대주제	소주제	핵심내용
관계에서 만들어진 내적 표상	자아의 내적 고립	엄마가 없는 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나
		공허하고 외로운 나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나
		비교하고 포기하는, 자신감 없는 나
		주관적이고 경직된 판단을 하는 나
	다가갈 수 없는 부모	부정적인 결말을 예상하는 나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엄마
		배려해 주어야 하는 엄마
		성취를 해야 사랑해주는 아빠
	압도되는 환경	충분한 사랑을 주지않는 부모
		함께 있어주지 않는 부모
		동등하지 않은 관계의 친구
		내것을 함부로 빼앗는 무서운 친구
		마음을 알 수 없어 다가갈 수 없는 친구
		훈내며 도와주지 않는 실망스러운 삼촌
		나를 비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할머니
		나에게 관심없고 수치심을 주는 학교선생님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헤어짐의 관계		
새롭게 만들어가는 나의모습	이전과는 다른경험	나를 무시할것 같아 회피하고 싶은 상담선생님
		의지하고도 싶고 의심도 드는 상담선생님
		안정감을 주고 도움을 주는 상담선생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은 상담선생님
		호기심이 생겨 알아보고 싶은 상담선생님
	나를 찾는 여정	같이 놀고 싶은 상담선생님
		회피했던 부정정서를 대면하는 나
		억압된 욕구를 언어로 말하는 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개방하는 나
		유아적인 애착욕구를 표출하는 나
		엄마의 요구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나
		나에 대한 만족으로 여유를 가지는 나
		주체성과 자율성을 형성하는 나
	모방을 통해 도전하는 나	
	관계맺음의 다른 모습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는 나
		양육자의 비난으로부터 감정을 거리두기하는 나
		또래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나
		부당한 비난에 맞서는 나
애착관계를 시도하는 나		
지지와 확신을 요구하는 나		
활기있는 상호작용을 원하는 나		
부정정서를 넘어서고 유대감을 획득하는 나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나		

1. 관계에서 만들어진 내적 표상

1) 자아의 내적 고립

또래보다 조금 큰 키에 통통한 체구의 여아로 1회기에 치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친구 Y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두서없이 말을 쏟아내며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과도하게 활발한 모습과는 달리 아동은 눈맞춤을 잘 하지 못하고 말에 조리가 없어 이야기의 맥락을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미술작업을 위해 매체를 선택할 때는 반환성품을 골라 반짝거리고 화려하게 꾸미고 싶어했다. 매번 많은 양의 재료를 확보하고는 무엇을 만들지 결정하지 못해 초조해 하다가 작업을 완성하지 못한 채 아쉬움과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며 회기를 끝내는 경우가 잦았다. 아동은 미술작업 중에 양육자나 친구에 대한 불만이나 자신의 불안과 우울, 슬픔이나 외로움,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호소하곤 하였다. “할머니가 나보고 멍청하다고 혼냈어요 친구한테 멍청하게 물건 뺏기냐고 해요, S가 나한테 못해요 Y는 나한테 자꾸 빼치구요.” 치료사가 공감하며 상호작용을 하여도 반응하기보다는 말을 돌려 회피하고 감정을 숨기거나 혹은 충동적으로 발산하는 상반된 모습으로 자신의 부정정서를 다루는 것에 미숙하며 감정의 기복을 보였다. 타인의 태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생각의 전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불만과 억울함의 감정을 자주 호소했다. “Y와 놀고 싶어서 놀려고 했는데 Y가 갑자기 약속을 어겼어요. 갑자기 약속이 바뀌었어요. 너무 슬퍼요. 지난 주에 아빠가 미술치료 끝나고 논다고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바꿔서 미용실에 갔어요.”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감이 적고 위축된 모습으로, 미술작업 중에 알록달록하게 나무꾸미기 작업을 완성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무를 불투명 시트지로 덮어버리며 자신의 작품을 부정하며 내적표현욕구를 억압하였다. “아니야 이거 보이지 않게 덮어 버릴래요. 아니야 잘 못했어요. 안이빠요 안보이게.” 아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색채감이 좋고 미술에 소질이 있음에도 작업 중 작은 어려움에도 낙심하며 쉽게 포기해버리는 등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주어진 기회와 과업을 회피하는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거 자꾸 빠져나오니까 틀릴까봐 안할래요.” 이 때마다 아동은 혼잣말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질타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내적불안을 처리하였다. “살구색이어야해, 안그럼 안이빠 그렇게 하지말아 00아, 나는 잘 못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내적 표상은 부정적이고 외부의 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아 정서적인 안정감이 흔들렸다. 아동은 미술치료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1회기부터 등장하던 친구 Y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 자신의 생일파티를 주제를 그림을 그린 후 “Y가 생일날 선물을 받고 즐거워 펄쩍펄쩍 뛰었다.” 며 친구 Y에게 자신을 동일시 하여 설명하고 자신을 주체로 이야기 하지 못하였다.



[그림 1] 자신에 대해 표현한 미술 작품

2) 다가갈 수 없는 부모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퇴근시간이 늦은데다가 아동의 모는 에너지가 낮고 공감과 지지가 약하다. 모는 퇴근 후에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적다. 아버지는 아이의 요구에 안된다는 말부터 하며 금지사항이 많고 무섭게 대하는 편으로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한다는 모의 보고가 있었다. 미술치료를 경험하며 내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게된 아동이 모에게 다가가 정서적인 지지를 원할때도 모는 아동의 반응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00이가 저랑 아빠한테도 자기주장을 많이 해요 할말 다해요. 00이가 짜증섞인 말투를 많이 쓰고 자기주장이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배려하는 아이었는데... 아기 소리를 내고 다가오는데 징그러워요. 제가 눈 마주치고 이야기를 잘 안해요. 부담스러워요, 제가 요즘 퇴근이 너무 늦어서 아이 근황을 잘 몰라요, 자주 토닥거려 달래요.” 등 ‘징그럽다’, ‘부담스럽다’라며 아이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동에게는 자신을 공감하고 수용해 주지 않는 양육자와 권위자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많고 자주 우울해 하나 자신의 부정정서를 표출하지 못하고 억압하였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에 대해서는 ‘지시를 내리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라는 타인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선생님, 엄마 아빠예요.” “아빠가 내 작품이 보기 흉한가봐요 다 버렸어요. 여행가서 텐트 방안에만 있고 아빠가 나 무시해요, 나는 인형놀이해요.” 아동이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표상에서 거절감을 많이 토로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것에 두려움을 가진다. 그러나 아동은 미술회기를 거둬하며 자아의 욕구를 인식함에 따라 엄마와의 애착욕구를 표현하며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를 시도했으나 우울증을 진단받아 에너지가 부족하고 아동과의 정서적인 공감과 수용을 나누어 주지 않는 엄마와의 동일시를 이루는 것에는 실패하고 애착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아동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함을 경험하였다. 이는 52회기에서 눈, 코, 입이 없는 엄마의 얼굴로 묘사되어 친밀감의 욕구와 좌절의 양가적인 감정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아동은 자신의 억압된 엄마와의 애착형성에 대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였다. “내일 내 생일이에요. 기대 없어요 맨날 호텔가요. 어차피 엄마, 아빠는 둘이 따로 다른데 가고 나는 원래 혼자 놀아요. 같이 있고 싶어도 못하는데 괜찮아요...<잠시 후> 엄마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요....”



[그림 2] 엄마에 대해 표현한 미술 작품

3) 압도되는 환경

5살까지 지방에서 외조부모와 자란 아동은 부모와 감정의 유대를 경험하며 애착형성을 통해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빈약하여 건강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귀가가 늦은 부모님들 대신 외조부모와 삼촌이 아동의 양육에 많은 부분을 관여하였다. 친구Y와 비교하여 비난하거나 화를 잘 내는 조부모와 중독수준의 게임광인 삼촌 등 다소 강압적인 양육환경에서 아동은 내적안정감을 잃고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는 일이 잦았다. 미술치료시간에 치료사가 대화를 시도할때면 “선생님 지금 저한테 혼내시는 거예요?” 라고 확인하며 상호소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긴장하기도 하였다. 아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대인관계에서 일방적인 비난이나 무시경험을 가지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으므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게 되었다. “삼촌과 할머니는 자주 혼내요, 혼내기만 해요. 할머니가 내가 멍청하다고 혼냈어요. 멍청하게 뺨기냐고 해요.” “학교 선생님이 내 말을 잘 듣지도 못하고 신경안써서 속상했어요. 학교 선생님도 잘 안도와주고 할머니도 맨날 나 혼내고.. 옛날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무관심 했어요. 나를 무시해요. 치.. 삼촌이나 엄마, 아빠는 도와주지도 않고.. 삼촌은 조카한테 친절한데 우리삼촌은 안그래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기 보다는 억압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 명의 양육자가 강압적이고 비밀관된 양육을 하며 서로 다른 메시지를 주어 아동으로 하여금 내적 혼란을 가지고 오게 했으며 이는 아동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가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 “피아노 학원에서 콩쿨을 위해 연습하래요. 그런데 Y랑 S와 비교가 돼서 연습하기 싫어요.” 이렇게 형성된 아동의 자아정체감은 아동이 가장 자주 만나며 오랜 시간을 보내는 친구 Y와의 관계에서 자주 나타났다. 아동은 친구 Y의 주도적이고 자기주장이 강한 모습과 자신을 동일시 하기도 하였다. 비록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자신의 물건을 강요하듯 요구하는 친구 Y가 무서우면서도 친구 Y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친구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내가 싫다는데도 자꾸 내 필통을 달라고해서 줘버렸어요, Y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막 알려달라고 하고 안알려주면 화내요. 알려줬어요. 무서워요.” 친구 Y가 무서운 아동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을 사귀려고 시도도 해보았다. 아동은 또래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친구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우스꽝스러운 행동도 해보고 친구들의 관심을 끌 만한 물건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지만 친구를 만들지는 못했다. 아동이 생각해 낸 방법은 자신을 비하하는 방식이었다. “제가 친구들하고 있을 때 웃기게 행동해요. 친구들이 웃어서 내가 내 머리를 뽕망치로 쳤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았고 아동은 결국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며 좌절하였다. 아동을 압도하는 양육환경은 아동이 자기표상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3] 또래관계에 대해 표현한 미술 작품

2. 새롭게 만들어가는 나의 모습

1) 이전과는 다른 경험

아동은 초기에 치료사와의 눈맞춤을 피하고 어색해 하며 신뢰감을 형성하며 상호작용까지 많은 기간이 걸렸다. 초기에 치료사와의 어색함을 피상적이고 과장된 감정으로 감추려고 하였고 과도하게 흥분하여 치료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다가도 갑자기 위축되는 등 관계에서의 불안과 긴장을 감추며 감정기복을 보였다. 치료사는 아동의 어떠한 감정표현에도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읽어주었고 미술작업을 통해 표현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도와주며 지지해 주었다. 아동은 미술치료를 통해 치료사와 일관성 있는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치료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잦은 요구를 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는지 확인하고 싶어했다. 그러다가도 자신의 내적인 욕구를 철수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등 신뢰감과 불신의 양가감정을 가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인 욕구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치료사의 담아주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가짐에 따라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점차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아동은 미술작업을 하면서 충족되지 않는 자신의 욕구와 손상된 자아를 위로하였다. 석고 손 만들기 작업에서 석고손을 쓰다듬으며 “엄마가 쓰다듬는 느낌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문지르면되요? 선생님 이거 금방 굳어요?, 선생님 여기 더 붙여주세요. 엄마의 손길 같아.. 차갑지만 따뜻해.”라며 했다. 아동은 치료사의 일관된 상호소통 속에서 공감과 수용의 담아주기 환경을 경험하며 신뢰감을 형성함에 따라 내면의 긍정적인 정서 뿐 아니라 내면의 억압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도 드러낼 수 있게되었고 점차 상호소통에 대한 욕구가 늘어났다. 치료사에게 먼저 게임을 제안하며 상호작용을 시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엄마와 치료사를 비교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 저것 물어보았다. “예쁘다, 선생님도 예쁘죠? 너무 예뻐요. 선생님은 나의 도움이에요. 손잡고 가는 사람. 만족해요.” 선생님아동은 자신의 관심사를 치료사에게 개방하며 상호소통을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화됨에 따라 대화의 길이도 늘어났다. “선생님~선생님, 저랑 모래판에서 막대기 쓰러뜨리기 게임해요. 선생님은 매니큐어 안 칠해요? 엄마는 칠하는데.. 선생님 집은 어디 살아요? 이것 보세요. 선생님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랑 보여줄께요 제가 유튜브에 그림 그려서 올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림 4]) 관계 속에 탐색한 자신을 표현한 작품

2) 나를 찾는 여정

아동은 회기가 진행되어감에 따라 미술작업과 매체선택에서 변화를 보였다. 엄마가 싫어할 거라며 특정색을 고르지 않거나 반짝이거나 화려한 재료를 필요량보다 많이 차지하고도 무엇을 만들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던 초반 모습이나, 작품의 외형을 치장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내부는 텅 빈 상태로 놔두고 무엇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작업을 멈추던 초기의 모습과는 달리 치료실에 있는 다른 아동의 작품을 보고 모방을 통해 도전해 보기도 하였다. 또한 주로 딱딱한 매체를 선택하며 내면의 긴장감 등 부정감정을 억압하고 회피하던 초반에 비해 점차 부드럽고 통제가 약한 수채물감, 글래스데코 천사점토 등을 사용하여 감각을 자극하고 내면의 정서를 이완하고 표출시킴에 따라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내면 정서와 욕구의 표현에 자유로움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동은 글래스데코를 맨손으로 마구 문지르며 “이러면 안되는데, 엄마는 묻히는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재미있다. 안되는데.. 아 재미있다.. 정말 재밌다.” 등 자신 안에 있는 엄마의 표상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 고민하였으나 결국 자신의 정서적 욕구를 주체적인 선택하였다. 이후 회기부터 아동의 작업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작품의 크기가 확장되고 엄마와의 정서적 연결을 소망하는 끈으로 묶은 선물의 상징이 나타나는 등 엄마와의 정서적인 유대와 애착형성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지 않게 되었다. 중기에 가장 많이 드러난 아동의 내적인 변화는 자기 인식과 자아상에 대한 출현이었다. 억압하거나 과장되고 피상적인 감정표현 혹은 충동성, 우울, 불안, 위축, 공포 등의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자기개방을 통한 긍정적인 발달과 퇴행을 반복하며 변화되어갔다. 이는 점차 또래관계에 대한 기대감, 성실함, 친밀감, 신뢰감 형성, 부정적 자동 사고에 대한 긍정적인 교정등의 적응적인 변화를 보였다. 치료 초기에 왜곡된 자아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작업을 포기하던 모습에서 ‘잘 못할 것 같아. 아니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망하게 해봐야지, 도전해 볼래요’, ‘OO아 수고했어.’ 등 주어진 과업에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감도 키워 능동적인 자아상으로 변화하였다. 아동은 중기가 지날수록 작품의 외형을 꾸미는 작업보다 “마음의 숨겨진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OO이의 별 일기장. 친구랑 논걸 쓰고 싶어요.”라며 점차 자신의 내면 탐색에 관심을 보이며 미술작업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숨겨진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작업에 몰입하고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원하는 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자기인식과 표현이 늘어감에 따라 언어표현이 명료해지고 조리있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되었고 치료사와의 대화시간도 길어졌다. 치료초기에 자아상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 적었던 아동은 미술작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조금만 비뚤어지면 어렵다고 호소하며 작업을 쉽게 포기하던 모습이였다. 중기로 갈수록 스스로를 독려하며 작업을 완수하여 성취감을 맛보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해 나갔다. 자신의 작품을 거부하고 비난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며 집으로 가져가서 완성하기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가족들과 치료사에게 보여주며 스스로 만족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작품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내적 자신감을 보였다.



[그림 5]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며 표현한 미술 작품

3) 관계맺음의 다른 모습

아동은 이전에 종속적으로 따라다니던 무서운 친구 Y와 거리두기를 하고 자신의 결정에 따라 친구와의 관계에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다. “친구가 내 집에 놀러왔어요. 치킨먹고 뭐 만들지 기대되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는 “오늘은 볼펜을 2개 만들어서 친구S 랑 나랑 하나씩 할 거예요, 친구에게 볼펜을 만들어 줄거예요<중략>. 오늘 하나 밖에 못만들었는데 이 나비볼펜은 내가 가질거예요.” 라며 이전과는 달리 자신을 먼저 챙기는 태도를 보였다.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아동은 자신을 비교하고 억박질렀던 양육자나 친구 Y의 비난에서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며 적절한 거리를 두는 마음의 여유를 보였다. “할머니가 내가 Y에게 이용당한데요, 근데 맞아요, 자기가 놀고 싶을 때 노는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화나서 안놀고 그냥 왔어요.”, “시험을 봤는데, 할머니가 꾸중을 해요 그런데 저는 시험점수 만족해요.”

아동은 치료사와의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상호소통도 늘었다. 모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은 친구들과의 상호소통이 이전보다 능동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Y와의 관계에서 예전보다 종속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아요. Y에게도 할말 하더라고요.” 이는 치료사의 비난하지 않는 무조건적 수용과 공감적 대화에서 안정감을 느끼자 감정과 욕구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자기개방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래와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타인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인 상호소통을 시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중기 과정에서는 아동의 내면 정서의 긍정적인 변화 외에도 외현화된 태도의 다양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아동의 상호작용에 대한 능동적 태도, 외부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탐색, 조리 있는 의사전달,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또래관계 시도,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태도, 미술작업에서의 자신감, 정서이완과 안전한 감정표출 증가 등 외현적인 시도와 함께 자신의 생활에서의 다양한 도전이 증가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가 십자수 사준데요. 도전해 볼래요. 혼자해서 칭찬 받았어요 기분 좋아요.” 후기에서 아동은 또래관계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많이 표현하였고 또래관계를 맺기 위해 능동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또래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미숙한 사회성과 대인관계 연습부족으로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좌절이 있을 때 마다 아동은 과거의 부정정서를 반추하고 위축되어 내면의 감정을 억압하며

퇴행하기도 하였지만 초기에 좌절하고 포기하던 반응과는 달리 자신에 대한 정체감의 혼동은 없었으며 또래관계를 맺는 것에 지속적으로 도전하였다. 아동은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종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탐색한 이별의 의미를 “내가 잘못 해서 떠났어요.”라고 말하며 이별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을 떠올리며 죄책감과 거절감을 드러냈으나 종결을 준비하는 회기를 거치는 동안 아동은 미술치료종결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미술치료 끝나서 아쉬워요.. 많이 웃으라고 밝은 상을 주고 싶어요.” 라며 외부와의 소통에 대한 욕구와 내면의 힘과 열정드러내는 태양이 떠 있는 창문과 긴 머리의 소녀그림을 그리며 미래희망고취하고 회기를 종결하였다.



(그림 6) 주제성과 미래희망을 표현한 작품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치료경험을 통해 애착 불안아동이 형성하는 정체성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미술치료를 통해서 드러난 아동의 정체성과 연구 과정 속에서 나타난 정체성 형성의 경험들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였다. 연구문제는 불안 애착 아동은 미술치료에서의 애착 형성 경험을 통해 어떻게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이루어 가는가? 이다. 불안 애착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불안이나 부정정서 감소 및 애착증진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아동의 애착형성에서 더 나아가 미술치료경험을 통한 정체성 형성 과정을 분류하여 개념화 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8개월에 걸쳐 S 시에 소재한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발달센터 미술치료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 아동 1명이었다. 자료를 코딩하고 질적 분석한 결과 42개의 하위 개념을 도출하였다. 42개의 하위개념들은 다시 6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였다. 미술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참여자의 내적 작동 모델에 따른 자기표상과 타인표상에 따라 형성된 정체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미술치료 과정에서 제공하는 촉진적 환경을 안전 기지로 삼아 새롭게 형성된 정체성 등을 포함하였다. 이에따라 아동의 정체성을 6개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주제 ‘자아의 내적 고립’에는 ‘엄마가 없는 나’,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나’, ‘스스로 돌보아야 하는 나’, ‘비교하고 포기하는, 자신감 없는 나’, ‘주관적이고 경직된 판단을 하는 자’, ‘부정적인 결말을 예상하는 나’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은 5살까지 지방의 외조부모댁에서 성장했다. 에너지가 낮고 공감을 잘 해주지 못하는 우울한 엄마 외에도 타인과 비교하여 비난하거나 강압적인 양육환경으로 인해 아동은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였고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표현에 있어 억압과 회피를 많이 하였다. 아동은 미술치료초반에 주로 화려하고 반짝이는 매체를 필요량 보다 많이 확보하고, 종이를 붙일때도 글루건을 이용해 강력한 접착을 원하는 등, 공허한 내면과 애착의 욕구를 채우고자하는 시도가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해 좌절하고 불만족과 아쉬움을 자주 경험하였다. 반짝이고 화려한 미술매체는 다가가고 싶은 세련되고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다가갈 수 없는 부모에는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엄마', '배려해 주어야 하는 엄마', '성취를 해야 사랑해주는 아빠', '충분한 사랑을 주지않는 부모', '함께 있어주지 않는 부모' 등이 해당되었다. 아동은 미술작업에서 자신을 위한 작품을 만들기 보다 엄마에게 줄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열심이었다. "엄마의 생일선물을 만들거예요."라며 몇주 동안 같은 작업을 했다. "엄마가 쓸 헤어밴드예요." 등 아동은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누리기 보다는 엄마를 만족시키고 엄마의 마음에 들고 싶어했다. 그러나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엄마가 어떤 마음인지 알지 못하였고, 이는 미술작업에서 "보라색 엄마가 싫어하는 색이어서 안돼, 옷에 묻히면 엄마가 싫어하는데."라며 자신의 내적욕구를 금지시키는 행동으로 자주 드러났다. 또한 아동은 우울하여 늘 누워있는 엄마를 상징하는 침대를 만들고 하트를 꾸몄으나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겠다며 엄마와의 애착욕구를 표현하지 못했고 이는 이후에 눈코입을 그리지 못한 엄마의 얼굴그림에서도 드러난다.

셋째, 압도되는 환경에는 '동등하지 않은 관계의 친구', '내것을 함부로 빼앗는 무서운 친구', '마음을 알 수 없어 다가갈 수 없는 친구', '혼내며 도와주지 않는 실망스러운 삼촌', '나를 비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는 할머니', '나에게 관심없고 수치심을 주는 학교선생님', '나에게 죄책감을 안겨주는 헤어짐의 관계', '나를 무시할 것 같아 회피하고 싶은 상담선생님'이 해당되었다. 아동은 형제가 없는 외동으로 많은 어른들에 둘러싸여 성장하였다. 동등한 대인관계 보다는 위계를 우선시 하는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동으로 하여금 유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처세를 유발하기도 하고 위축되고 무능한 자아를 발동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비밀관된 양육방식으로 인해 아동은 양육자와 권위자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신뢰감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요인이 되었고 아동에게 자아성장을 위한 탐색의 안전기로서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넷째, '이전과는 다른경험에는 '의지하고도 싶고 의심도 드는 상담선생님', '안정감을 주고 도움을 주는 상담선생님', '지지와 격려를 받고 싶은 상담선생님', '호기심이 생겨 알아보고 싶은 상담선생님', '같이 놀고 싶은 상담선생님'이 해당되었다. 아동은 미술치료를 처음 만났을 때 과하게 밝은 표정을 짓고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으나 말이 횡설수설하고 일방적이어서 이해할 수 없었다. 치료사에게 질문을 쏟아놓지만 대답을 하면 듣고 있지 않는 등 아동은 상호소통에 미숙하고 그저 내적인 불안을 통제하고자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었다. 미술작업을 할 때는 칭찬받을 만한 과한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하다가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럴 때 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통제하며 속상해 하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났다. 무언가 거창한 것을 만들어 성취하여야 치료사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하였다. 아동이 경험한 양육자 없음의 내적 불안은 억제를 하거나 충동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감정표현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엄마와의 애착욕구가 좌절되었을 경우, 치료사를 비난하거나 과하게 의존하였다. 이렇듯,

애착과 불신의 양가감정으로 퇴행을 반복 할때마다 치료사는 일관된 안아주기 환경을 제공하고 지지와 공감을 하며 기다려 주었다. 이는 아동에게 촉진적 환경의 안전기지가 되었고 이후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표현하며 자아정체감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다섯째, 나를 찾는 여정에는 '회피했던 부정정서를 대면하는 나', '억압된 욕구를 언어로 말하는 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개방하는 나', '유아적인 애착욕구를 표출하는 나', '엄마의 요구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나', '나에 대한 만족으로 여유를 가지는 나', '주체성과 자율성을 형성하는 나', '모방을 통해 도전하는 나' 등이 해당되었다. 아동은 자아정체성에 대해 안정감과 여유로운 만족감을 경험함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신뢰감과 친밀감 의존욕구와 애정욕구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손상된 자아를 스스로 위로하고 돌보며 자신의 감정과 존재에 대해 인정하고 돌보는 시도를 해나갔다. 친구와 비교하는 양육자의 비난을 적절하게 거리두기 하는 여유로움이나 자신의 학업 성취에 대해 만족하는 등 내적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모습이였다.

여섯째, 관계맺음의 다른모습에는 '양육자의 비난으로부터 감정을 거리두기하는 나', '또래관계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나', '부당한 비난에 맞서는 나', '애착관계를 시도하는 나', '지지와 확신을 요구하는 나', '활기있는 상호작용을 원하는 나', '부정정서를 넘어서고 유대감을 획득하는 나', '헤어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나'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은 또래관계욕구가 있을 때 타인이 다가와주기만 기다리지 않았고 친구사귀기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실천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미술치료경험이 애착불안 아동이 생애초기 형성된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표상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정체성을 미술치료가 제공하는 촉진적 환경을 안전기지로 삼아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에 유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애착 불안 아동의 애착형성에 따른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서 부모와 양육자를 포함하는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개인의 치료적 접근 뿐 아니라 애착형성의 중요대상인 모-자 간 미술치료 등을 통해 부모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함께 다루어 주어야 할 부분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애착형성과 고유한 정체성 형성의 성장과정을 분석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로 일반화하기 어려운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다양한 대상자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애착 불안 아동의 치료적 관계의 재경험을 통해 건강한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모자 간 미술치료 혹은 또래관계와 함께하는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을 기르는 것도 학령기의 또래관계 개선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 아동은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가족 간 의사소통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의 발달과 더불어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 가족간 긴밀한 정서적 유대와 소통이 증진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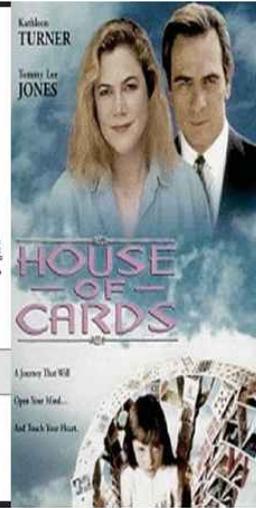
■ 참고문헌

- 곽진영, 하은혜 (2015). 불안한 아동의 불안감소와 애착증진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Winnicott의 촉진적 환경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제22권 제5호(통권 80호)
- 권미나, 이진숙(2018). 기본심리욕구에 대한 학령기 아동의 생각과 경험에 관한 연구.
- 권윤정 (2016). 학령기 북한이탈가정 아동대상 집단놀이치료 사례연구-심리적 외상의 회복과정을 중심으로-
- 김경숙 (2005). 시각적 동일시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인간의 자아표현에 관하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순 (2010). 이주여성의 상호문화 소통과 정체성 협상. 서울: 북코리아
- 김은희, 김영순 (2021). 중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이주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정체성 협상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5집 2호.
- 김춘경 (2004). 『아동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남경인, 이미숙 (2006). 불안정애착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변화 사례연구-모래놀이치료를 중심으로-.
- 박민선, 전종국 (2016). 불안정 애착아동의 미술치료과정에서의 신뢰형성에 관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82호).
-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서울: 한국과학사.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4).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유안진, 민하영, 권기남(2001). 시설 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윤민주 (2018).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정서 및 행동의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연구. 아동가족치료연구. Vol.17.
- 이경하 (2007). 또래관계의 어려움과 분리의 문제로 의뢰된 아동의 놀이심리치료 사례. 예술심리치료연구. 제3권 제1호. Vol. 3, No. 1, 103-136.
- 이미애 (2004). 미술치료가 불안정애착 아동의 애착안정성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진경 (2016) 중국계 중도입국청소년의 방과후 영어수업 참여경험에 나타난 정체성 협상.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그문트프로이트 저(2013). 『집단심리학과 자아분석』. 서울: 지도리
- 최나리 (2015). 불안정애착아동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제5권 제2호. Vol. 5, No. 2, 65-84.
- 최지원 (2013). 이야기치료 개입을 통한 아동의 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성원 외 (2010). 『아동심리와 상담』. 서울: 창지사.
- Ansberry, C. M. S. Blehar, M, War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D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nsberry, C. M. (1999). The Struggle for self-esteem; A Comparative study between Adolescent females with Attachment Issues. Thesis, Ursuline College Graduate Studie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Vol. 2). NY; Basic Books.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Narthan, T. (2006). Mon patient Sigmund Freud, PERRIN, Paris: Contemporary French Fiction.
- Nieto. S. (2016). 언어, 문화 그리고 비판적 다문화교육.김영순 외 옮김, 성남: 북코리아
- Rogers, C. (1959). A theory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In. S Koch(Ed.), psychology; A study of science, Vol. 2. New york; Mcgraw-Hill.
- Whelan, W. F., & Marvin, R. S. (2011). Caregiver patters of results from the Virginia foster cate study (NH Award No. GC11456) at the biennial metting of the Societr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ontreal, Quebec, Canada.
- Winnicott, D. W. (1984). Deprivation and delinquency (C. Winnicott, R. Shepherd, and M. Davis Eds.). London; Tavistock Publications.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 ent and healthy hum an developm ent. New York: Basic Books.

2022년 인하대-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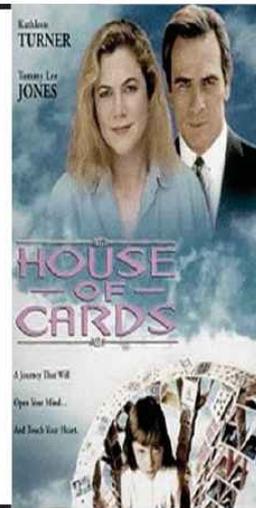
영화 <<카드로 만든 집>> 을 통해 본 멜랑콜리와 애도

강원대학교 인문교육협력학과 박사수로 김수아



목차

1. 들어가며
2.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 1) 상실과 우울
 - 2) 침묵의 의미
3. 상징화의 재배열 : 카드로 만든 집을 통한 애도 작업
4. 나오며



역사 속 멜랑콜리

멜랑콜리(검은 담즙)

→ 고대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이거나 또는 인문학적 용어로 사용되고, 그 의미가 발전해 옴.

→ *인간과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 설명/ 사회적, 의학적, 인식론적 기준*
(Jennifer Radden, 2000)

고대 의학자

→ 체액병리학 Humoralpathologie 관점

→ 인간의 기질 : 혈액, 노란 담즙, 검은 담즙, 점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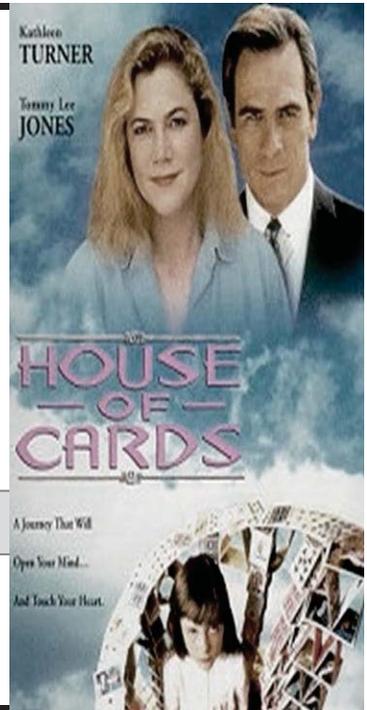
→ 검은 담즙의 과잉 혹은 그로 인한 체액의 불균형을 정신적 신체적 질병 요인으로 간주

→ 고대 의학서 (Asklepiades, Archigenes, Soran):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2022년 인하대-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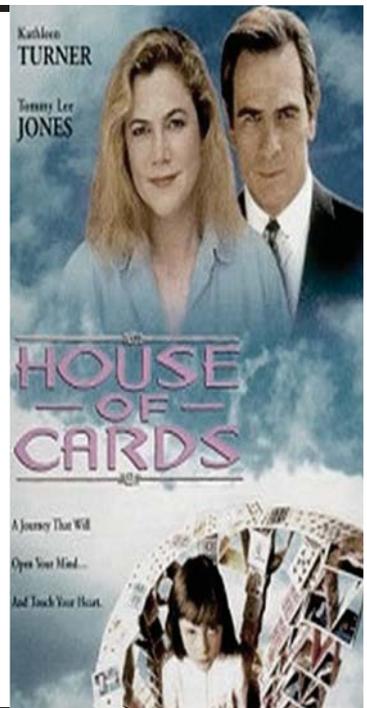
영화 <<카드로 만든 집>> 을 통해 본 멜랑콜리와 애도

강원대학교 인문교육협력학과 박사수로 김수아



목차

1. 들어가며
2.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 1) 상실과 우울
 - 2) 침묵의 의미
3. 상징화의 재배열 : 카드로 만든 집을 통한 애도 작업
4. 나오며



역사 속 멜랑콜리

멜랑콜리(검은 담즙)

→ 고대 시대부터 인류의 역사와 함께 인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의학적 또는 인문학적 용어로 사용되고, 그 의미가 발전해 옴.

→ 인간과 세상을 관찰하는 방식 설명/ 사회적, 의학적, 인식론적 기준
(Jennifer Radden, 2000)

고대 의학자

→ 체액병리학 Humoralpathologie 관점

→ 인간의 기질 : 혈액, 노란 담즙, 검은 담즙, 점액

→ 검은 담즙의 과잉 혹은 그로 인한 체액의 불균형을 정신적 신체적 질병 요인으로 간주

→ 고대 의학서 (Asklepiades, Archigenes, Soran):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역사 속 멜랑콜리

중세

- 9세기 아랍 천문학자 : 멜랑콜리 = 고대체질론 + 천문학 → 토성
- 멜랑콜리커 : 토성의 차가운 기운을 타고 난 비활동적이고, 사색에 자주 잠기는 사람
- 종교와 도덕 윤리 : 절망, 무기력, 낙담
- 순수 정신병리학적 관찰 : 과도한 뇌활동의 산물 → 괴팍, 기만, 슬픔, 과묵, 불면증

르네상스

- 멜랑콜리의 긍정적 가치
- 심오한 것을 드러내는 창조적 활동 : 예술적 천재성
- Marsilio Fincino : 심오한 것을 드러내는 창조적 활동, 신성한 광기를 지닌 슬픔

4

멜랑콜리의 예술 창조성

뒤러 Albrecht Dürer의 동판화 <<멜랑콜리아 I Melancholia I>>, 1514

- 깊은 생각의 표현과 창조성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
- 여인 : 비애와 나태 / 예민함과 명민함 → 공존
- 톱, 망치, 십자 바늘, 직각자 : 목공, 석공 = 창조와 균형
- 예술의 천재성
- 마방진 : 유희적 목성 ↔ 우울한 토성 → 감정과 사고의 균형

→ 각 시대의 사회적 환경과 사상에 따라 여러 위치에 놓여 해석되었던 인간의 감정과 사유인 멜랑콜리는 생존하기 위해 균형이라는 속성이 부각 되었고, 창조와 균형이라는 요소가 멜랑콜리의 우울하고, 예민한 기운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멜랑콜리의 예술성과 애도의 큐비즘적 요소

멜랑콜리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색의 능력, 조화와 창조성을 지닌 멜랑콜리는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상실에서 온전한 애도로 나아가게 하는 발화점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대리언 리더 Darian Leader는 그의 책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에서 프로이트의 애도 작업과 슬픔과 우울에 대한 에세이를 피카소와 브라크의 큐비즘에 비유하여 애도 작업에도 다양한 시점으로 인간 감정의 여러 파편을 설명하는 큐비즘과 같이 상실로 인한 우울 감정의 양상을 다양한 각도로 결합하고, 재배열하는 큐비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Darian Leader, 2008)

인간은 상실 후에 겪게 되는 감정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방식이 다르기에 우울과 슬픔의 해결 방식 또한 다르며, 때로는 그 살아온 환경과 방식으로 인해 상실의 감정의 출구를 찾는 방법이 우리 사회가 말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어린 여자아이 셸리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상실에 대한 애도 작업으로 그녀의 엄마 루스와 주인공 셸리가 슬픔에서 나오는 과정을 그린 영화 <<카드로 만든 집 House of Cards>>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상실에 대한 우울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멜랑콜리의 창조성으로 감정을 재배열하여 애도를 완성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의 스토리가 제시하는 치유적 단서를 따라가며 멜랑콜리의 창조적 측면으로 감정과 기억을 재배열하여 완성되는 애도의 과정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1) 샬리의 상실감과 우울

- 마야에서의 아빠의 죽음
- 샬리 : 상실감 → 침묵
- 줄리아 크리스테바 Julia Kristeva : 우울증은 공백 상태나 혹은 질서를 잡을 수 없는 관념적 혼돈이 과잉 속에 침잠되어 관념화를 중단하여 침묵으로 이어진다 (Julia Kristeva. 김인환 역주. 『검은 태양』. 東文選. 2004. p.49.)
- 샬리의 공백 상태 : 가족들과의 분리 / 가족들의 상황을 감지 못함
- 강박 증상 : 샬리 자신이 만든 질서가 무너질 때 → 반복적 괴성
- 환청 : 마야 인형, '높은 곳으로 가' → 공사장, 지붕
- 망상/공상 :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공상

7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1) 샬리의 상실감과 우울

- 정신과 의사 비어랜드의 진단 : 자폐적 증세 → 중뇌 손상과 신체적 외상 가능성(트라우마)



8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1) 샬리의 상실감과 우울

- 정신과 의사 비어랜드의 진단 : 자폐적 증세 → 중뇌 손상과 신체적 외상 가능성(트라우마)
- 첫째, 샬리는 상호관계적인 단절을 보인다.
 - 가족들과의 분리와 같은 불안정을 상황을 연출해도 불안과 울음과 같은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가족들의 사랑 표현에도 웃음과 같은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 둘째, 샬리는 자신의 기억 속에 정립되어 있는 물건의 순서나 기준이 무너지면 강박 증상과 함께 괴성을 내는 상동증을 보인다.
 - 마야 인형들의 위치를 바꿨을 때 반복적 괴성을 낸다.
 - 어머니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반복적 괴성을 낸다.
- 셋째, 샬리는 자신이 누군인지 제대로 명명하지 못한다.
 - 샬리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인지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르키는 반복적 행동을 한다.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2) 침묵의 의미 : 상실을 이겨내기 위한 샬리의 세상

- 샬리의 세계관 : 샬리의 모든 경험이자 세상이었던 마야 → 마야 언어와 문화 습득 → 마야 신화
- 아빠와의 불충분한 애도
 - 아빠의 죽음 :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인 달로 이사가는 것
 - 말을 하지 않으면 투시법으로 사람의 마음과 원하는 세계를 볼 수 있다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2) 침묵의 의미 : 상실을 이겨내기 위한 샬리의 세상

- 샬리의 표현 : 마야에서의 기억 : 나무로 위장
 - ⇒ 샬리의 침묵의 형태이자, 입을 닫아 언어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샬리의 새로운 표현 방식
 - ⇒ 나무와 같은 색으로 자신의 몸을 칠하여 상실의 슬픔에서의 도피



상징계의 균열과 모색

2) 침묵의 의미 : 상실을 이겨내기 위한 샬리의 세상

- ⇒ 샬리의 외부세계와의 단절과 공백상태 = 상실로 인한 우울 + 이미 학습되어진 문화 관념을 통한 행동의 결과
- ⇒ 공존 : 샬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 달에 있는 아빠에게 가고 싶은 샬리의 내면 세계

멜랑콜리커는 동시에 두 세계, 즉 서로 겹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두 공간에 있으며, 절박하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하고 싶어한다. (Darian Leader,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Graywolf Press. 2008. p. 187.)

- ⇒ 샬리의 의사 전달 방식이 문명 사회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 그녀는 그녀의 방식으로 상실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 ⇒ 정신과 의사 비어랜드의 치료 : 샬리의 무너진 외부질서와 상징 체계를 인정하지 않는 학습 실시
 - ⇒ 즉, 기존의 자폐들이 보이는 병리학적 증세를 바탕으로 샬리의 세계를 부정한 채 자신이 속한 세계로 샬리를 끌어올려고 한 것이다.

상징화의 재배열

샐리의 애도 작업 : 멜랑콜리의 창조성과 카드로 만든 집

- 샐리의 세상(상징)을 찾는 엄마, 루스
- 뒤러의 그림에서 보여졌던 멜랑콜리 창조성 → 샐리의 언어



상징화의 재배열

샐리의 애도 작업 : 멜랑콜리의 창조성과 카드로 만든 집

- 샐리의 세상(상징)을 찾는 엄마, 루스
- 뒤러의 그림에서 보여졌던 멜랑콜리 창조성 → 샐리의 언어



상징화의 재배열

샐리의 큐비즘적 애도 작업 : 카드로 만든 집

애도는 감정의 재편성과 재배열이라는 움직임이며, 다양한 상황, 자세, 장소, 분위기, 맥락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작업이다. (Darian Leader,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Graywolf Press. 2008. p. 30.

- 카드 작업 : 아빠의 추억, 죽음 사건과 감정의 재배치



상징화의 재배열

샬리의 큐비즘적 애도 작업 : 카드로 만든 집

- 카드로 만든 집 : 아빠와의 기억을 상징하는 공간 → 새의 날개 짓 : 애도 작업
- → 즉, 샬리는 상실에 대한 애도를 카드 집이라는 상징으로 만들어내는 예술적 체험 속에서 이뤄냄
- → 빈 자리에 새로운 이미지인 새를 넣어 달에 있는 아빠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는 애도 : 분리
- (Darian Leader,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Graywolf Press. 2008. p. 193)



상징화의 재배열

루스와 샬리의 큐비즘적 애도 작업 : 카드로 만든 집

- 샬리의 새로운 상징과 샬리의 상징을 공유하는 엄마, 루스 : 공동의 애도 작업
- 프로이트의 '꿈꾸기 작업'처럼 생각이나 소망이 외현적이고 복잡한 꿈으로 전환되는 것.
- 무의식의 작동기제 전치, 왜곡, 응축
- 애도자의 생각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배열되며 통과되고 바뀌는 과정의 중요성

(Darian Leader,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Graywolf Press. 2008. p. 28.)



상징화의 재배열

루스와 샬리의 큐비즘적 애도 작업 : 카드로 만든 집

- 샬리의 새로운 상징과 샬리의 상징을 공유하는 엄마, 루스 : 공동의 애도 작업
- 프로이트의 '꿈꾸기 작업'처럼 생각이나 소망이 외현적이고 복잡한 꿈으로 전환되는 것.
- 무의식의 작동기제 전치, 왜곡, 응축
- 애도자의 생각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배열되며 통과되고 바뀌는 과정의 중요성

(Darian Leader,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Graywolf Press. 2008. p. 28.)



상징화의 재배열

루스와 샬리의 큐비즘적 애도 작업 : 카드로 만든 집

- 샬리의 새로운 상징과 샬리의 상징을 공유하는 엄마, 루스 : 공동의 애도 작업

→ 프로이트의 '꿈꾸기 작업'처럼 생각이나 소망이 외현적이고 복잡한 꿈으로 전환되는 것.

→ 무의식의 작동기제 전치, 왜곡, 응축

→ 애도자의 생각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배열되며 통과되고 바뀌는 과정의 중요성

(Darian Leader,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Graywolf Press. 2008. p. 28.)



나오며

샬리의 큐비즘적 애도 작업 : 카드로 만든 집

애도는 감정의 재편성과 재배열이라는 움직임이며, 다양한 상황, 자세, 장소, 분위기, 맥락 속에서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작업이다. (Darian Leader, 『The New Black Mourning, Melancholia and Depression』. Graywolf Press. 2008. p. 30.)

- 카드 작업 : 아빠의 기억 표현, 사건과 감정의 재배치
- 분리를 의미하는 애도의 상징 : 카드 속 샬리의 새의 몸짓

나오며

애도는 애도자가 사건에 대한 감정의 재배열과 결합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상징계를 완성하는 전반의 과정일 것이다. 영화 <<카드로 만든 집>>은 상실 경험에 반응하는 방식을 멜랑콜리의 예술성을 통한 애도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상징계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 즉, 문명 사회가 말해주는 보편적인 의사 전달 체계와 다른 샬리의 상실과 애도 표현은 멜랑콜리 안에 존재하는 창조성과 여러 경험을 포함하는 애도의 형태를 엿보게 한다.

샬리는 상실의 고통으로 현실을 망각하는 나(자아)와 아빠가 있는 달에 가서 작별을 해야하는 또 다른 나가 공존하는 세계 속에 있었다. 샬리는 이 작별을 이루기 위해 천재성을 드러내며 자기만의 의사 표현으로 성을 쌓고,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애도 작업을 하고, 위안을 얻어 우울의 병리적 현상에서 벗어나 예전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애도의 과정은 멜랑콜리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창조성이 슬픔의 고통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멜랑콜리커인 샬리가 상실의 모든 기억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하는 애도는 언어가 아닌 예술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멜랑콜리가 자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나오며

또한, 샬리가 카드 집에 아빠와의 기억을 재배열하는 것에서 기억과 경험에 대한 큐비즘적인 시각을 볼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샬리는 아픔의 근원인 상실을 사람과 기억에 대한 관습적인 이미지로 새로운 상징을 만들어 표현하고 있다. 더불어, 이 부분은 샬리가 새로운 상징 통해 우울의 혼돈과 외부 세계와의 단절에서 애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큐비즘적인 요소는 엄마인 루스가 샬리의 애도를 돕는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루스는 언어로 자신의 상태를 전하지 않는 샬리의 내면 세계를 보기 위해 그녀의 표현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재배열하면서 샬리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다. 우울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지지만, 인생 전반의 배경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긴 시간 속에서 만들어낸 복합적인 증상이다. 즉, 문제가 있는 인생의 한 부분만을 떼어서 그 원인을 모두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루스는 샬리의 모든 삶이었던 마야 문화의 이해와 면밀한 관찰로 샬리의 우울이 아빠의 죽음 목격에서 비롯된 것이며, 샬리가 그녀만의 방법으로 아빠와의 이별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루스가 샬리의 모형물 속에서 그녀가 겪은 사건들을 역순으로 따라면서 알게 되었다. 또한, 샬리의 상실에 대한 감정의 파편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샬리의 이상 행동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것은 루스가 샬리의 우울한 감정을 큐비즘적인 시각에서 재배열하여 애도를 이끌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오며

샬리의 카드로 만든 집은 언어로 표상될 수 없는 상실의 슬픔과 우울이 예술이라는 옷을 입음으로 내면의 감정이 여러 측면에서 재정립되고, 표현된 창조적 작업이다.

이와 같은 멜랑콜리와 큐비즘적인 애도 작업은 *‘집요한 우울증을 베일로 가리는 여성들의 장신구처럼 미는 상실의 감탄스런 얼굴 모습처럼 나타나고 상실을 변형시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멜랑콜리의 아름다움에 대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말 (Julia Kristeva, 2004) 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창조의 발화점이 상실을 극복하게 하는 애도 작업의 시작이며,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애도를 완성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을 보여준다

2022년 인하대-강원대 BK교육연구단 공동 학술세미나

2022년 4. 22.(금) 13:00 - 16:30

- 주제: 다문화 사회와 인문케어
- 장소: 인하대학교 서호관 308호
- 진행: 오프라인 및 웨비나(ZOOM) 동시진행
- 주최: 강원대 BK21교육인문협력학과교육연구단
교육인문협력학과,
인하대 BK21글로벌다문화교육연구단
다문화융합연구소, 다문화교육학과
- 후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연구재단



Program

사회: 이한나 선임연구원(강원대)

구분	시 간	내 용	발표자
개회	13:30~13:40(10')	인사말	김영순 BK교육연구단장(인하대)
			김진영 BK교육연구단장(강원대)
주제 발표	13:40~15:00(80')	세션 1.	강원대 유강하 교수
	13:40~14:00(20')	문학치료 참여 대학생의 정체성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성찰 경험을 다룬 질적 메타분석	발표: 김명희(인하대, 박사1차)
	14:00~14:20 (20')	캄보디아 초등교사양성제도의 최근 개혁동향과 교육구성원의 인식 분석	발표: LACHAKASY(강원대, 박사수료)
	14:20~14:40 (2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퇴 방문교육지도사의 사회적 실천에 관한 생애사 연구	발표: 남정연(인하대, 박사3차)
	14:40~15:00 (20')	휴식	
	15:00~16:20 (80')	세션 2.	인하대 오영섭 교수
	15:00~15:20 (20')	꿈 분석을 통한 자기인식 변화 고찰	발표: 이소정(강원대, 석사3차)
	15:20~15:40 (20')	미술치료경험을 통한 애착불안 아동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발표: 서현주(인하대, 박사2차)
	15:40~16:00 (20')	영화 '카드로 만든 집'을 통해 본 멜랑콜리와 애도	발표: 김수아(강원대, 박사수료)
	16:00~16:20 (2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폐회	16:20~16:30 (10')	총평 및 폐회	김영순 BK교육연구단장(인하대)
			김진영 BK교육연구단장(강원대)

